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EFFECTS OF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ON COLLEGE STUDENTS' VALUE SYSTEM AND CAREER MATUR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TUDENTS OF HYECHON COLLEGE

written by

KYUHYUN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Moon Sang Kwon

Young Shin Kim

Seyoon Kim

September, 2004

**EFFECTS OF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ON COLLEGE STUDENTS' VALUE SYSTEM AND CAREER
MATUR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TUDENTS OF HYECHON COLLEGE**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KYUHYUN LEE

SEPTEMBER 2004

기독교 교양교육이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

- 혜천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 문 상 교수

이 규 현

2004년 9월

Abstract

Effect of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on College Students' Value System and Career Matur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tudents of Hyecheon College

Kyuhyun Lee

Doctor of Ministry

2004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Korea the college students are generally allowed to have much freedom even though it demands various responsibilities as well. In order that they can grow in their knowledge and personality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ies and the nation, it is necessary for them to have the sound sense of values and career maturity. Hence in this study I have attempted to substantiate this necessity by providing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Christian liberal arts course on the college students' value orientation and career maturity inventory.

About 400 college students who took the Christian liberal arts course (titled "The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at Hye-cheon University, in which I am currently serving as a chaplain, became the target group for this study. The two surveys which comprised the questions disclosing their sense of values and the career maturity had been practiced: one in the beginning of course and another at the end.

The Christian liberal arts course offered at Hye-cheon University is comprised the lectures of the fourteen weeks and had three main sessions: the Christian world view, Christian values, and career education. The Christian world view session dealt with the topics such as "Introduction to Christianity," "God as the object of faith," "Who are humans," and "Christology." The Christian values session dealt with the following topics: "Christian view on history," "Culture," "Family," "Nation," and "Occupation." And lastly the career education session dealt

with the following: "Discovery of the Self," "Sound perspective on the occupations," "Occupational consciousness," "Exploring the occupational world" and "Decision-making skills."

For the surveys I have used the value measure which Cheol Min Kim developed to analyze Koreans' sense of values and which comprised 64 questions with 4 point measure (the degree of reliability to be 0.89). And I also used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which was developed by Crites and translated into Korean with adaptation by Hyun Ok Kim (the degree of reliability to be 0.85). For analysis of the survey data I utilized SPSS Win 10.0 which was especially useful to test the significance of frequency, t-test, and One-way ANOVA.

From the analysis of the surveys several important facts could be observed. First, the students who took the Christian liberal arts cours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their sense of values, when I compared their response to the survey after the course with that before the course. This result tells us that the Christian liberal arts course was effective to help them have the sound sense of Christian values. Second, they also showed a significant change in their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 increase of their career maturity inventory point can be another piece of evidence that the Christian liberal arts course at Hye-cheon University focusing on the career education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D.

Young Shin Kim, Ph.D.

Seyoon Kim, Ph.D.

헌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 대학이 세워지는 비전을 품고 혜천대학을 경천(敬天; To Worship God), 위국(爲國; To Serve the Country), 애인(愛人; To Love Neighbors)이라는 숭고한 기독교 건학 이념으로 설립하셔서 조국과 교회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온 생애를 바쳐 오신 혜천학원의 설립자 혜천(惠泉) 이병익 장로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감사의 글

교회에서 사역하던 목사에게 대학에서 청년들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입니다. 젊은 청년의 시절 장년이 될 저에게 두 가지 꿈이 있었다면 하나는 신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복음과 문화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생의 후반기에 복讎 땅에 기독교 대학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여 복讎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서 가장 강렬한 이 두 가지 꿈 중에 이미 하나는 기독교대학인 혜천대학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데 불러주셨고, 물심양면으로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주시며 든든한 후견자가 되어주신 혜천학원 이사장 이용국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논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지도해 주시며 열정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권문상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학문적 조망과 연구를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세운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후의로 보살펴주신 혜천대학 학장 백영철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로 격려해 주신 혜천대학교교회 조정환 담임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아내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길었던 학위과정의 길에서 기도하며 언제나 묵묵히 성원하고 함께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 9월 이규현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
제 2 장 기독교 교양교육의 필요성	6
제 1 절 기독교 교양교육의 목적과 성격	6
1. 기독교 교양교육의 목적	6
2. 기독교 교양교육의 성격	8
제 2 절 기독교 교양교육의 현황과 현실문제	9
1. 대학별 기독교 교양과목의 개설 현황	10
2. 기독교 교양과목의 교수분포와 개설목표	12
3. 기독교 교양과목의 현실문제	13
제 3 장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태도의 이론적 배경	16
제 1 절 대학생의 발달 특징과 문제 행동	16
1. 대학생의 발달 특징	16
2. 대학생의 문제 행동	17
가. 음주와 흡연	17
나. 약물남용	19
다. 혼전임신	20
라. 자살	21
마. 비만과 거식증	22
제 2 절 대학생의 가치관	23
1. 가치와 가치관	23
가. 가치의 개념	23

나. 가치관	24
다. 가치관의 분류	25
2 가치관 발달에 대한 세 가지 이론적 접근	26
가. 정신분석학적 입장	27
나. 학습이론적 입장	27
다. 지각적 해석(장의 이론)에서 본 가치관 형성	28
3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29
가. 청소년의 의식구조	29
나.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31
제 3 절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	33
1. 진로와 직업의 정의	32
2. 진로발달이론	33
가. 특성요인 이론	33
나. 욕구이론	34
다. 발달이론	35
라. 정신분석이론	37
마. 의사결정이론	38
3. 진로성숙	38
4. 진로정보	40
5.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의 현실	42
6. 진로성숙을 위한 진로지도	46
7. 효과적 진로지도를 위한 성격유형 검사	48
가. MBTI의 이해	48
나. MBTI와 진로	53
제 4 장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과정	57
제 1 절 혜천대학의 기독교 교양교육	57
1. 혜천대학의 건학 이념과 교육 이념	57

2	채플과 기독교 교양 과목	58
3	혜천대학의 기독교 교양과목의 교과과정 내용	58
	가. 성서의 세계	59
	나. 기독교 윤리	59
제 2 절	본 연구에서 적용된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과정	59
1.	기독교 교양교육 교과과정	60
2.	교과과정의 구체적 교육내용	60
	가. 기독교 정신 교육	61
	나. 가치관 교육	62
	다. 진로지도	63
제 5 장	기독교 교양교육 실시 전후의 연구결과 분석	69
제 1 절	연구 방법 및 제한점	69
1.	연구방법	69
2.	연구의 제한점	70
제 2 절	대상자의 특성과 가치관 및 진로성숙도	71
1.	대상자의 특성	71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교적 특성	72
	나.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수준 점검	74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교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	75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75
	나. 대상자의 종교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77
	다. 기독교대학생의 신앙 수준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78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종교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	79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80
	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별 비교	82
	다. 대상자의 종교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85
	라. 기독교대학생의 신앙 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86

마.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하위 영역별 비교	87
제 3 절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 수준과 상관관계	88
1.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 수준	88
가. 대학생의 가치관 수준	88
나.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수준	89
2.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89
제 4 절 대상자의 전후 가치관과 진로성숙도 비교와 추후검증	90
1.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가치관 비교와 추후검증	90
가. 대학생의 교양교육 전후 가치관 비교	91
나. 대학생의 가치관 수준에 대한 추후검증	91
2.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진로성숙도 비교와 추후검증	92
가. 대학생의 교양교육 전후 진로성숙도 비교	93
나.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추후검증	93
제 5 절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 은 기독교대학생간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 비교	94
1.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 은 기독교대학생간의 가치관 비교	94
2.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 은 기독교대학생간의 진로성숙도 비교	97
제 6 장 연구결과의 논의 및 제언	102
제 1 절 대학생의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	102
제 2 절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104
제 3 절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과정 개발에 대한 제언	106
제 7 장 결 론	108
부록	112

참고 문헌 118

Vita 122

표 목 차

<표 1> 각 대학별 기독교 교양과목 개설 현황	11
<표 2> MBTI 16가지 성격유형 도표	49
<표 3> 기독교 교양과목 교과과정	60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2
<표 5> 기독교대학생의 특성	73
<표 6>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수준 점검	74
<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76
<표 8> 대상자의 종교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77
<표 9> 기독교대학생의 신앙 수준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79
<표 1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80
<표 11>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하위영역별 차이	82
<표 12> 대상자의 나이에 따른 진로성숙도 하위영역별 차이	83
<표 13> 대상자의 종교에 따른 진로성숙도 하위영역별 차이	84
<표 14>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85
<표 15> 기독교대학생의 신앙 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86
<표 16>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별 비교	87
<표 17> 대상자의 가치관 수준	88
<표 18> 대상자의 진로성숙도 수준	89
<표 19> 대상자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와의 상관관계	90
<표 20>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가치관 비교	91
<표 21> 대학생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추후 검증	92
<표 22>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진로성숙도 비교	93
<표 23>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변화에 대한 추후 검증	94
<표 24> 기독교 교양교육 전, 세 집단의 가치관 비교	95
<표 25> 기독교 교양교육 후, 세 집단의 가치관 비교	96

<표 26> 대상자의 가치관에 대한 시점별 변화	96
<표 27> 기독교 교양교육 전, 세 집단의 진로성숙도 비교	98
<표 28> 기독교 교양교육 후, 세 집단의 진로성숙도 비교	99
<표 29> 대상자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시점별 변화	9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21세기에 이르러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물질 문명화와 정보화의 물결은 개인과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치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역효과를 발견하게 된다. 특히 자아정체감 발달 과업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에 현시대는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 물질문명화를 이루면서 오그본(Ogburn)이 말한 문화지체(cultural lag)현상이 점점 심화되어 자아정체감 확립과 가치관 정립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¹⁾

가치관이란 행동방향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가치가 적용되는 범위보다 훨씬 넓고 더 일반적인 행동장면을 포함한다.²⁾ 이러한 개념에서 가치관은 인간행동의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된다는 것과 인간행동의 흐름에 대하여 질서와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치관은 인간행동의 전 시기에 걸쳐 중요한 것이지만, 특히 성인기의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의 준비 시기인 대학생에게는 청소년기의 과업인 자아정체감 확립과 더불어 건전한 가치관의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생의 가치관 혼란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천안 모 대학의 대학생 실태조사에서 한국 대학생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입생들

1) 세계철학대사전 (서울: 교육출판공사, 1987), 335에서 재인용.

오그번(Ogburn)의 *Social Change*(1922)에 의하면 문화지체 현상은 직선적, 누전적으로 진보하며 빈번·신속하게 변화하는 물질문화와 이러한 급격한 변화와 적응의 능력이 없는 비(非)물질문화사이에 특히 현저하고 그 경우 항상 이상적(理想的), 병리적인 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2) 정범모, *학업성취의 요인* (서울: 교육출판사, 1989), 14-23.

이 지적하는 대학생들의 문제점은 이기적 및 타산적인 경향이라는 견해가 28.4퍼센트로 가장 높고, 낭비와 사치풍조라는 지적이 25.6퍼센트이며, 학업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24.3퍼센트, 건전한 가치의식의 결여가 16.8퍼센트의 순으로 지적하였다.³⁾ 이 실태 조사를 통하여 그밖에도 대학생의 흡연문제, 약물남용문제, 혼전 성관계, 음주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건전한 가치관 정립의 필요성과 함께 졸업 후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는 대학에서 요구되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의 고민문제를 보면 대부분 학업성적과 진로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통계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이 진로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⁵⁾ 이것은 입시위주의 진로지도, 부모중심의 결정,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왜곡된 직업의식 및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부족과 같은 진로 결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지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달 단계상 이들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대학생들의 특성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한 케니스톤(Keniston)에 의하면 대학생은 자신으로부터 사회에서의 자신으로 정체성이 전환이 되는 단계에 있다고 하여⁶⁾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사회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긴장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에릭슨(Erikson)에 의하면 대학생은 아직 정체위기와 역할 혼미를 경험하는 단계에 있다.⁷⁾ 이 두 사람은 대학생들이 속한 발달단계가 역할정체(role identity)와 진로역할(career role)을 포함한 미래의 역할 개입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진로지도와 관련해서 트리드만(Triedeman)과 오하라(O'Hara)는 사회에서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진로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⁸⁾ 즉 개인이

3) 천안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 (천안: 천안대학교 학생생활 상담 연구소, 2001).

4)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 문제와 실태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12-16.

5) <http://stat.chungnam.ac.kr>.

6) K. Keniston, *Youth and Dissent: The Rise of the New Oppos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1), 124.

7) Erik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1963), 261-263.

자아정체감이란 자기동일성에 대한 자각인 동시에 자기의 위치, 능력,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그 해답은 쉽게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게 되고 이 고민과 방황이 길어질 때 정체감 혼미가 온다.

8) D. Tiedeman, & R. O'Hara,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Princeton:

결정을 내릴 때 사회의 요구와 개인의 요구를 통합해서 각자의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데 진로정체(career identity)가 바로 이러한 전환의 주요 목표라고 한다. 대학 재학 중 이러한 역할이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성숙은 자기 자신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조정해 나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으로 진로 발달 수준을 뜻한다. 즉 개인의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직업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낳는 과정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⁹⁾

기독교 대학 교양교육은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하는 교양교육이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다(잠 9:10).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학문과 지식을 대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학문과 지식 활동의 뿌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정신은 대학의 사명을 규정하는 견강한 이념들과 공존한다.¹⁰⁾ 즉 기독교 정신은 대학의 교육 이념이나 가치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독교 정신이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을 화해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인격이 기독교 정신이 지향하는 인간상이다.¹¹⁾

다시 말하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대학의 교양교육은 단순한 지식 교육이나 기능 교육이 아니라 전인적 인격 교육을 지향한다.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인격의 변화이며, 인격의 주도적 변화를 통한 공동체의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교양교육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의 정립에 필요한 시민정신 교육, 여가를 위한 교육, 인간에 대한 교육과 직업과 진로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현시대 대학생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교양교육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없다면 기독교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보아야 한다.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은 대학생들이 학문적, 인격적으로 훌륭히 성장하고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1963), 134-135.

9) 김충기,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서울: 양서원, 1995), 274.

10) A. Holmes,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서원모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9-10.

11) Abraham J. Heschel, *누가 사람이냐*, 이현주 역 (서울: 종로서적, 1996), 109-110.

지역사회 발전과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가치관과 진로태도에 대한 성숙을 갖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진로와 관련한 교과과정을 구성 적용한 기독교 교양교육의 효과를 평가하여 대학에서의 기독교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실제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가치관의 혼미 상태와 대학을 졸업 한 후에 진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효과적인 기독교 교양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진로태도 성숙을 위해 실시되어지는 대학의 기독교 교양교육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연구자가 현재 교목으로 재직하고 있는 혜천대학에서 기독교 교양과목(기독교 이해)을 수강한 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건전한 가치관과 진로태도 성숙을 목적으로 한 14주의 교과과정을 적용하였다. 자료처리에서는 학생 400여 명 중 설문지 대답이 미비한 48명을 제외시키고 352명을 분석 처리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기독교 교양교육을 실시하기 전후의 가치관과 진로태도 성숙을 사전 사후 비교하는 유사실험 연구이며 자료의 처리는 사회과학 통계 프로그램(SPSS Win 10.0)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은 첫째,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퍼센트)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가치관과 진로성숙의 차이는 각 집단의 평균 득점차이를 구하여 티검증(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유의성 유무를 검증하였다. 셋째, 전체 대상자의 전·후 가치관과 진로성숙의 차이는 사전집단과 사후집단으로 나눈 후 평균 득점차이를 구하여 대응표본 티검증(Paired-samples t-test)을 통해 검증하였다. 넷째, 전·후 비기독교 대학생, 기독교 대학생, 정상적인 신앙고백을 하는 대학생간의 가치관과 진로성숙의 차이와 시점별 차이는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의 도구는 대학생의 가치관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김철민의 한국인의 가치관을 측정하는 4점 척도의 총 64문항으로 구성된 가치척도¹²⁾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89 이다. 진로태도 성숙을 측정하는 척도는 크리티스(Crites)가 개발한 CMI(Career Maturity Inventory) 척도를 김현옥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 중 태도척도만을 사용하여 실시 한 것으로써 총 47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의 진로성숙 척도이다. 신뢰도는 85이다.¹³⁾

12)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 편, *심리척도핸드북 I* (서울: 학지사, 2001), 634-636.

13)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 편, *심리척도핸드북 II* (서울: 학지사, 2001), 223-225.

제 2 장

기독교 교양교육의 필요성

본 장에서는 기독교의 복음 정신을 건학이념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기독교대학에서의 기독교 교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절에서는 기독교 교양교육의 목적과 성격, 2절에서는 기독교 교양교육 현황과 현실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즉 기독교 교양교육의 본래의 목적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고, 현재 기독교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독교 교양교육 개설과목과 교과과정 내용을 분석하여 기독교 교양교육의 목적과 성격에 따른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현실 문제점을 고찰하여 해결방안을 전개할 것이다.

제 1 절 기독교 교양교육의 목적과 성격

기독교대학에서의 기독교 교양교육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신에 바탕을 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같은 건학이념의 실천을 위하여 교목실을 설치하여 채플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련의 기독교 과목들이 교양교육과정에서 학과목의 일부로 배정되어 진다.

1. 기독교 교양교육의 목적

기독교교육은 예배와 성경공부 시간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주당 몇 시간의 교육으로 기독교적 인격형성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전교과목과 세계관에 대해 기독교적 사고의 능력을 길러주고 기독교적 인생관을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 교양교육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¹⁴⁾

첫째는 학생들이 기독교, 성경 및 교회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즉 기독교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도해야 한다. 둘째는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예배, 종교행사 및 교목, 교수와의 인격적 관계형성을 통하여 느끼게 해야 하며, 특히 자신의 인격과 삶의 영적인 차원에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학생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및 인생관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긍정적으로 형성된 바탕 위에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인격형성 과정에서 그것들을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경우는 주체적 선택과정이므로 점진적으로 접근하여 윤리판단과 기독교적인 가치체계가 정립되도록 지도자는 학생들의 철학적 사색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으로 경험하게 한다. 기독교 윤리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봉사를 교내 외의 생활 상황에서 실천을 통하여 기독교 정신을 경험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고백적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기독교 가치관의 긍정적 수용과 나아가서 기독교 정신의 경험적 터득으로 기독교적인 삶의 터전이 마련되었으나 그 삶의 완성은 예수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신앙고백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고백적 신앙이 성숙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학생 개개인을 돕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상의 것을 요약하면 기독교 교양교육의 목적은 창조세계의 모든 실재를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바라보게 하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물들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하며 기독교 정신을 삶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학생을 돕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통일성과 다양성, 질서와 조화를 깨닫게 도와주어야 하며, 세상과 현실을 지혜롭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구비하여 죄의 세력에 단호하게 대항하도록¹⁴⁾ 가르치기 위한 기독교 교양교육의 내용은 기독교문화에 대한 이해, 성경과의 접촉, 경건 생활의 훈련, 신앙공동체의 경험,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실천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학교 협의회, *기독교학교교육* (서울: 목양사, 1988), 91.

15) C. Wyckof, *기독교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김국환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17.

2. 기독교 교양교육의 성격

기독교 교양교육에는 인간적 정체확립의 다음 세 가지 본질적 요소가 기본적이다. 그 세 가지 요소는 전인격적으로서의 사람을 특징짓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¹⁶⁾ 이것은 신앙과 가치의 문제들에 대해 무감각하고 그것에 관계하지 않으며 또한 초연하고 중립적인 계몽주의적 이성의 개념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적으로 된다는 것은 분석적인 것을 의미하며, 호기심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한다. 인간은 질문을 해야 하고 분석적으로 탐구해야 하며 사고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은 인간으로 존재함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¹⁷⁾ 이성적이라는 것은 사물들을 연관 지워 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질서 있는 전체가 되도록 조직하는 것이며, 종합적이며 통일된 이해를 추구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둘째로,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진 역사적 존재이다.¹⁸⁾ 과거가 다시 현재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현재 알려져서 이해되고 되살아 날 때만 인간은 과거에 대해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자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과거를 파악해야 한다. 인간이 역사적 존재라는 말은 자신의 시간들을 결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도록 도움으로써 그가 자신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인간은 현재의 자신을 초월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아직은 그렇게 되지 못한 그러나 되고 싶은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 인간은 창조적 행동에 의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에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자유로운 행위자의 역할을 개발하도록 돕는 교양교육은 신성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를 이해하고 방향 감각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며, 긴 안목을 가진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며 지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 준다. 여기에서 두 가지 교육목표가 도출되는데 과거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미래의 창조

16) A. Holmes, *기독교대학의 이념*, 박진경, 서보임 역 (대구: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1986), 34.

17) Ibid., 35.

18) Ibid., 36.

적인 참여이다. 인간은 창조된 목적인 역사적 역할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직업가로서 완수할 수 있다. 역사적 행위자로서 인간은 불가피하게 미래에 참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양교육은 지성과 창조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셋째로, 인간은 가치 평가적 존재이다.¹⁹⁾ 인간은 가치를 깨닫기 위해 가치 판단을 하고 행동한다. 인간의 사고를 정립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세계관은 단순히 가치중립적인 명제들의 이론적인 체계가 아니라 삶에 대한 가치 평가적인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가치를 평가하신다는 점에서 볼 때 인간은 가치 평가적 존재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기뻐하시고 피조물들 가운데 부여하신 가치를 이루시고자 하시므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치를 교육해야 한다는 목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윤리학, 미학 및 그 밖의 다른 가치 영역들과 가치판단의 논리적 구조에 접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은 최소한 이성적, 역사적, 가치 평가적 존재이고 교양교육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을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개발하는 교육이다. 기독교 교양교육은 인간이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켜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기독교 교양교육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 견지에서 행함으로써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역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인인 마땅히 해야하는 대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절 기독교 교양교육 현황과 현실문제

앞에서 기독교 교양교육의 목적과 성격을 고찰하였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 대학의 기독교 교양교육이 기독교 교양교육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는 교육이 시행되어지는지 진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의 기독교 교양교육 현황과 현실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학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독교 교

19) A. Holmes, *기독교대학의 이념*, 37.

양과목의 개설현황과 교재, 기독교 과목의 개설 및 교수 목표, 대학에서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분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대학별 기독교 교양과목의 개설 현황²⁰⁾

기독교 교양과목은 기독교 대학이 교양 필수 또는 교양 선택으로 개설하는 과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독교 교양과목은 대학 안에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진리를 실천 및 학문적으로 접하게 함으로써 기독교적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의 빛 안에서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조명하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아래 개설되어 진행되어지고 있는 각 대학별 기독교 교양과목의 개설 현황은 <표 1>과 같다.

각 대학들이 개설하고 있는 기독교 교양과목들의 명칭은 주로 다음 세 가지 방향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기독교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과목들이다. 경민대학, 경인여자대학, 배화여자대학, 선린대학, 신흥대학, 인덕대학, 전주공업대학, 백석대학, 혜천대학 등이 해당된다. 주로 기독교 개론, 기독교 이해, 기독교 진리 등의 과목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현대의 다양한 사상과 이론 속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며, 복음의 의미와 교회의 사명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의 필요성 등을 가르친다.

둘째는 성경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과목들이다. 계명문화대학, 명지전문대학, 안산1대학, 혜천대학 등이 이 과목들을 개설해 두었다. 주로 성서, 성경 개론, 성경의 이해, 성서의 세계 등의 과목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성서의 각 권 내용을 탐구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성경 전체의 구원사적 흐름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성서의 현대적 의미를 알게 하며 성서를 생활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는, 기독교 윤리 및 문화를 소개하는 과목들이다. 안산1대학, 전주공업대학, 전주기전여자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 혜천대학 등이 이 같은 과목들을 사용한다. 기독교 윤리, 기독교 문화와의 만남, 결혼과 가정, 생명 의료 윤리 등 다양한 이름의 과

20)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대학별 기독교 과목 현황은 2년제, 3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목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 또는 이슈들 즉, 낙태, 성, 청소년 문제, 대중문화, 인권, 노동, 빈부, 결혼 등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표 1> 각 대학별 기독교 교양과목 개설 현황

대학명	개설 과목명	2년제 학과				3년제 학과	
		학기당 학점수	학기당 시간수	의무 학기수	총 학점수	의무 학기수	총 학점수
경민대학	기독교 개론	2	2	1	2		
경인여자 대학	기독교 개론	1	1	1	1	1	1
계명문화 대학	성서	2	2	1		2	2
명지전문 대학	성경 개론	2	2	1	2		
배화여자 대학	기독교 이해	2	2	1	2		
선린대학	기독교 개론	0.5	1	2	2		
신흥대학	기독교 이해	2	2				
안산1대학	행복한 삶과 지리 건강한 성과 결혼 직업과 인생 생명 의료 윤리 성경의 지혜	1	1	4	4	6	6
인덕대학	기독교 개론	2	2	1	2	2	2
전주공업 대학	기독교 진리 결혼과 가정	1	1	2			
전주기전 여자대학	기독교와 문화	1	1	4	3		
백석대학	기독교 이해	1	1	4	4	6	6
청강문화 산업대학	기독교 문화와의 만남	2	2	1	2		
혜천대학	성서의 세계 기독교 이해 기독교 윤리	1	1	3	3	3	3

2. 기독교 교양과목의 교수분포와 개설목표

한국의 30개 기독교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독교 교양과목은 대부분이 교목실이나 신학과(또는 기독교학과)에서 관장한다.²¹⁾ 이러한 현실에서 기독교 교양과목이 '신학입문'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개론적 신학강의와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할 것이다. 기독교 교양과목은 선교의 방편으로 개설했다는 점과 기독교에 대해 지식이 거의 없는 비기독교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²²⁾

실제적으로, 기독교 교양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목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교양과목의 우선순위 교수 목표를 조사한 결과 '성서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하여'(42.7퍼센트), '기독교적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을 가르치기 위하여'(27.3퍼센트), '기독교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20.0퍼센트)의 순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7.3퍼센트), '기독교와 현대 사상과의 대화를 위하여'(1.4퍼센트),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대화를 위하여'(1.2퍼센트)는 비교적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²³⁾ 이러한 반응은 기독교 교양과목의 성격과 가르치는 교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기독교 교양과목은 분명히 신학과목과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교양과목이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을 배제해도 된다는 말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 교양과목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의는 비기독교인 학생들에게까지 기독교의 본질적인 복음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은 선교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과목 정체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역사와 세계, 인생, 문화, 타종교, 윤리, 경제 등 다양한 테마들을 강의와 토의, 교재의 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21) 강영선, "기독교 교양과목을 통한 선교", *대학과 선교* (2000), 36.

한국의 30개 기독교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독교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교수 분포는 교목(40.9퍼센트), 신학 전공 교내 교수(26.5퍼센트), 외래강사(20.8퍼센트), 지역교회 목사(9.6퍼센트), 타학과 교내 교수(1.0퍼센트) 결과로 나타났다.

22) 이계준, "21세기 대학과 학원선교의 새 모델", *충실대 100주년 기념 전국 기독교 대학 교목 초청 세미나 자료집* (1997), 4-7.

23) 강영선, *대학과 선교*, 37-38.

3. 기독교 교양과목의 현실문제

우리 사회에서의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는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기독교 대학에서 채플이나 기독교 교양과목이 다른 교양과목들과 더불어 상대화, 평가절하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풍토에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갈수록 어려운 과제일 것이며, 책임 있는 대학 당국자들과 구성원들의 강한 신앙 의지와 실천력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은 학문적 수월성과 동시에 윤리적-정신적 수월성을 지녀야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²⁴⁾ 특히 기독교 교양과목은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물질문명화 되어 가고 정신문화적으로 피폐되고 혼란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지닌 인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교과과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학과와 전공 분야, 기독교적 학문과 일반 학문 사이에 연구와 가르침이 가능한 교과과정을 개발해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²⁵⁾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가 문화신학적 패러다임을 교권주의적 모형, 세속주의적 모형, 역사-문화 변혁적 모형으로 구별한 것을 은준관은 역사-문화 변혁적 모형이 대학선교신학의 패러다임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²⁶⁾ 이것은 기독교 교양과목이 대학 안에 공존하는 일반 타학문에 대한 긍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타학문과의 폭넓은 교류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독교 교양과목과 신학 전공과목의 차이점이 구별될 것이며, 기독교 교양과목은 기독교 교리와 사상을 집중적으로 심층 연구하는 신학 과목과는 차별화 된 내용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 교양과목은 교과 내용에 있어서 신학 과목보다는 신학적 깊이는 얇게 구성하면서 인접 학문이나 문화적 접촉의 폭에서는 한층 더 넓게 접촉하며 조직되어야 한다. 신학을 연구하는 이들의 절대 다수는 헌신된 기독교인들이지만 기독교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이들의 분포는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들이 다수인 사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나 복음의 기초에 대하여 바른 이해나 입문이 덜 된 대상

24) 이계준, *기독교 대학과 학원선교* (서울: 전망사, 1997), 15.

25) Ibid., 45.

26) 은준관, "학원선교신학", *기독교 대학과 학원선교* (1998), 77-81.

들에게 기독교 신학의 아카데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수업 현장의 절박한 요청 과제가 될 수 없으며, 학생들의 관심이나 필요에도 적절하지 않다.

신학적 깊이의 얕음이 비기독교적 교과내용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교양과목 시간이야말로 다수의 비기독교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을 가르치고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기독교 복음을 가르친다고 해서 오직 성경만 주 교재로 사용한다거나 성경 이야기를 설교나 이야기식으로 단순히 구성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형태의 교재나 교수방법들을 개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과 도구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정된 교재를 강의형태로만 사용하기보다는 토의나 현장 학습,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도구의 활용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참여를 자극하는 접촉점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비기독교인 학생들에게도 기독교 교양과목이 호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교수 방법에서만이 아니라 교과 내용의 구성에서도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배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와 삶의 현장과 유리된 교과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접촉하며 살고 있는 문화적 상황 곧 직업, 결혼 및 가정, 대중문화, 사회정의 등의 현실과 관련하여 복음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교과 내용이어야 한다. 또 이러한 교육방법이나 교과 내용은 기독교인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통찰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지금까지 기독교 교양교육의 필요성 논의를 위해 1절에서는 기독교 교양교육의 목적과 성격을 고찰하였다. 기독교 교양교육의 목적으로는 창조세계의 모든 실재를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바라보게 하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물들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하며 기독교 정신을 삶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학생을 돕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통일성과 다양성, 질서와 조화를 깨닫게 도와주어야 하며, 세상과 현실을 지혜롭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구비하여 죄의 세력에 단호하게 대항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기독교 교양교육의 내용은 기독교문화에 대한 이해, 성경과의 접촉, 경건 생활의 훈련, 신앙공동체의 경험,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실천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기독교 교양교육의 성격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

시적 견지에서 행함으로써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역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인인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가치관을 형성을 조력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2절에서는 기독교 교양교육 현황과 현실문제 고찰로 기독교 교양교육의 현황에서는 대학별 기독교 교양과목의 개설 현황을 통해, 각 대학의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과정 내용의 공통점은 선교 차원에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내용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대학생의 구체적인 가치관 형성문제, 진로문제나 직업문제를 구체적으로 교육, 상담하여 진로 성숙을 조력하는 교과내용은 부족한 현실이다.

기독교 교양과목의 현실문제로는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는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기독교 대학에서 채플이나 기독교 교양과목이 다른 교양과목들과 더불어 상대화, 평가절하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교양과목은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 교양과목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물질문명화되어 가고 정신문화적으로 피폐되고 혼란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지닌 인간 형성에 도움을 주며,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학과와 전공 분야, 기독교적 학문과 일반 학문 사이에 연구와 가르침이 가능한 교과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요구되어지는 교양과목의 현실문제가 논의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 교양교육의 대상자인 현 시대의 대학생을 이해하고 진단하기 위해 대학생의 가치관과 앞으로 나아갈 진로성숙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 3 장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태도의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의 종속 변인인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 태도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독교 교양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에 맞는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관 형성과 발달을 돕고, 또한 대학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직업선택과 진로에 대한 태도에 대한 내용을 기독교 교양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적용하고자 전반적인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태도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1절에서는 연구대상자인 대학생의 발달 특징과 문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2절에서는 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 가치관에 대한 용어 정의, 분류, 가치관 발달 이론, 한국대학생의 가치관을 논의할 것이며, 3절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의 현실문제, 진로성숙을 위한 진로지도에 관한 내용,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성격유형 이론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

제 1 절 대학생의 발달 특징과 문제 행동

본 절에서는 대학생의 일반적인 발달 특징을 심리·사회적으로 접근하여 기술하고자 하며, 대학생의 문제 행동으로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의 보편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각성의 정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1. 대학생의 발달 특징

대학생은 연령적으로 청년기에 속한다. 청년기란 발달과정에서 독특한 의미를 갖

는다. 인간의 일생의 단계는 각 시기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어떤 사람의 일생과 그 사람의 사회에 대한 공헌을 평가하려 할 때 그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가 청년기이다. 실제로 가치 있고 창조적인 일을 하는 시기는 장년기이지만 청년기에 확립되는 성격·인생관 및 가치관은 장년기 활동의 기반이 될 것이다.

대학생이 되면서 학생들은 갑자기 다양한 환경에 접하면서 개개인의 소양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기회가 많아지며, 종교·가치관·인생관·정치적 견해 및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사회적 인지능력이 발달되면서 자아개념이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자극들은 대학생에게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다양성은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엄습하므로 미처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도 전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좌절감과 심한 불안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격동과 불안정을 경험하는 대학생은 자신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자아개념의 동요를 겪을 수 있다. 청년기 자아개념의 동요는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인상이나 타인으로부터 받는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지 못한데 기인된다.²⁷⁾

2. 대학생의 문제 행동

우리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입장에서 음주와 흡연 문제, 약물남용, 혼전임신문제, 자살, 심리적 문제의 하나인 비만과 거식증 등의 문제 행동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 음주와 흡연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관한 미국 하버드 대학의 공공보건연구소에서 펴낸 2년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에까지 이르러 폭음하는 학생의 수와 가끔씩 술을 즐기는 학생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동시에 늘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27) J. Suls & A. G. Greenwald,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Self*, Vol. 3 (Hillsdale, N. J.: Erlbaum, 1986), 112.

미국대학보건저널에 실린 것으로 1999년에서 2000년에 걸쳐 실시된 미 119개 대학에서 14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비교한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²⁸⁾ 1993년과 1997년에 비슷한 조사를 해 온 바 있는 하버드대학 조사팀은 폭음의 기준을 “남자가 한번에 보통 맥주잔으로 5잔 이상을 한자리에서 연속으로 마시거나, 여자가 4잔 이상을 연속으로 들이키는 음주행동” 이라고 정의내렸다. 조사에 응답한 학생 중 44퍼센트의 학생들이 지난 2주간 폭음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 수치는 1993년의 수치와 거의 같다. 23퍼센트의 학생들이 자신들을 알아주는 주당이라고 소개했다. 즉, 그들은 지난 2주 동안 적어도 3번 이상은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마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1997년의 21퍼센트와 1993년의 20퍼센트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19퍼센트의 학생들이 음주를 자제하거나 절제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것은 이전의 조사에서보다는 약간 오른 수치라고 한다. 그리고 16퍼센트의 학생들이 술을 전혀 마실 줄 모르거나 혹은 일부러 마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생 100명 중 92명은 한 달에 한번 이상 술을 마셔 대학생 음주자 비율이 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성수가 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길라잡이* 3월호에 발표한 ‘국내 대학생 음주실태’에 따르면 대학생의 월간 음주율(월간 1회 이상 음주자 비율)은 92.2퍼센트(남 94.4퍼센트, 여 89.2퍼센트)로 미국 대학생의 86퍼센트(96년 기준)보다 높았다.²⁹⁾ 한차례 술자리에서 마시는 음주량을 보면 7잔 이상이 40.9퍼센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4잔(21.3퍼센트), 5-6잔(21퍼센트), 1-2잔(13퍼센트), 반잔 이하(3.8퍼센트) 순으로 83.2퍼센트가 1회 2잔을 넘겼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57퍼센트가 한번 술자리에서 7잔 이상을 마셔 폭음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 남학생의 48.4퍼센트와 여학생의 19.1퍼센트는 주 1회 이상 폭음을 했고 전체의 46퍼센트는 음주 전후의 기억이 끊어지는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음주 습관으로 전체 학생의 1.2퍼센트(남학생 1.7퍼센트)가 알코올 중독 증세를 갖고 있고, 13.2퍼센트(남학생 18.2퍼센트)는 음주 의존 상태여서 전체의 14.4퍼센트(남학생 19.9퍼센트)가 음주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 조사 대상의 61.1퍼센트(남학생 68.4퍼센트, 여학생 48.9퍼센트)는 음주 후 경제적 곤란(25.4퍼센트), 친구와의 다툼(16.7퍼센트), 폭력(14.3퍼센트), 법규 위반(11.9퍼센트),

28) <http://naeilshot.unitel.co.kr>.

29) <http://health.daum.net/clinic/alkohol/news>.

성추행(4.7퍼센트), 음주운전 사고(2퍼센트), 성폭행(0.6퍼센트) 등 원하지 않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 이 실태조사는 지난 2001년 5월 서울과 수도권 소재 4개 대학 재학생 1천 8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국에 담배가 도입된 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은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교복과 두발의 자유화로 상징되는 학원의 자유화 물결이 일어나면서 중고생의 흡연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요즘은 대학생이 되기 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 60퍼센트가 담배를 피운다고 할 만큼 청소년 흡연은 보편화되어 있다. 대학생을 포함한 한국 성인의 흡연율은 대한 결핵협회와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29세 연령에서의 흡연율이 199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성인 남자는 70.4퍼센트, 성인여자는 48퍼센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흡연 국가가 되었다.³⁰⁾

음주와 흡연의 원인은 서구의 경우 또래집단의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³¹⁾, 한국의 경우에는 호기심,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약물남용

마리화나, 코카인 등 약물남용은 청소년기 심각한 문제 행동의 하나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 청소년 약물남용 비율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대학생의 경우 1986년에 7퍼센트가 1993년에 1퍼센트로 감소하였다.³²⁾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1991년 체육청소년부 보고에 의하면 대마초,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등 환각제를 남용하는 비율은 학교 청소년이 0.7퍼센트, 근로청소년이 1.8퍼센트, 소년원생이 17.3퍼센트로 보고되었다. 한국의 청소년의 경우에도 약물남용의 감소경향을 보인다. 1994년 청소년 백서에 의하면 학생 청소년의 대마초 남용비율은 1989년의 1.9퍼센트에서 1993년 0.4퍼센트로 감소했으며, 마약은 0.7퍼센트에서 0.2

30) 김신정, 문선영, "일부대학생의 흡연실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권 1호(2002), 147-160.

31) G. Castro et al., "A Multivariate Model of the Determinants of Cigarette Smoking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273-289.

32) L. Johnston et al., *Drug Use Rises among American Teenagers*,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1994), 111-116.

퍼센트로 감소했다. 1993년도 마약류 사범의 연령별 분포를 검토한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14-15세 사이가 0.3퍼센트, 16-17세가 4.8퍼센트, 18-19세 12.2퍼센트, 20-24세 사이가 82.7퍼센트로 보고되고 있다.³³⁾ 이러한 통계적 자료는 한국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10대 초반의 장난기 어린 시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청년후기의 문제행동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경험 자체가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약물남용의 위험성도 성인들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특히 성인의 약물중독은 이미 청소년기부터 그 뿌리를 들 수 있다. 약물사용이 중독으로 넘어 가는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다양한 시점에서 중독으로 넘어 가고 있으며 이것은 치료의 개입을 언제 해야 할 지에 혼란을 가져오는 중대한 문제라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약물사용은 가정의 생활수준과 이사 횟수, 가정의 형태, 부모의 관심도,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음주, 흡연 및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 등 그 비율간에 유익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관심도가 낮을수록 약물사용의 경험이 높고 부모의 음주, 흡연의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 학회 약물 남용 보고서에 의하면 약물사용의 경험이 많은 청소년은 비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금품갈취, 언어 및 신체폭력, 가출, 기물파손, 반항 등의 이탈 행동을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약물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사회규범의 내면화 정도가 낮아 규범을 어기며 자기보호 능력이나 자존감의 상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 혼전임신

미국의 경우 청소년의 혼전 성경험은 보편적이다. 19세 무렵이면 남자는 10명 중 8명, 여자는 10명중 7명이 성경험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³⁴⁾ 한국도 성개방 풍조로 인해 혼전 성경험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대학생이 되기 전 이미 고등학생 이전에 성경험율은 매우 높았다. 서울 시내 13개 고교 9,447명의 남녀 고교생을 상대로 고등학생들의 성형태 조사 결과를 보면 남고생의 16.7퍼센트, 여고생의 5.4퍼센트가 성

33) 청소년 대책 위원 편, *청소년백서* (1994), 25-29.

34) D. Irwin & A. Simon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Wisconsin: Brown & Benchmark, 1994), 89.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의식을 조사한 결과 남대생 과반수와 여대생 1/5이 성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³⁵⁾

이와 같은 청소년의 성행동의 결과로 혼전 성문제로 인한 미혼모의 증가, 낙태 등의 다양한 보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10대 청소년 16세에서 20세의 경우 26.5퍼센트가 인공유산술을 하고 있고 이들의 44.9퍼센트가 경제적 이유로, 26.5퍼센트가 강간이라는 이유로 인공유산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자살

미국 사회에서 자살은 청소년기 심각한 문제행동 중의 하나이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자살은 3배로 증가하였으며, 남자 청소년의 자살은 여자의 3배에 달한다. 청년기와 성인초기 죽음의 약 12퍼센트가 자살에 의한 것이다.³⁶⁾

청소년기 자살의 원인은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으로 구분된다. 직접적 원인은 이성친구와의 이별, 학업성적, 혼전임신, 약물중독 등이다.³⁷⁾ 간접적 원인으로는 가정의 불안정, 애정과 정서적 결핍, 지나친 통제와 성취압력 등 바람직하지 못한 아동기의 가정적 경험이 가져다준 우울증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와 친구부족도 자살의 또 다른 원인으로 알려진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1992년에는 해마다 200여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³⁸⁾ 연령분포는 14-24세 사이의 자살이 전체 자살 중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한다. 부모의 높은 기대, 성취압박 등 우리나라 특유의 청소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심리적 장애가 그 원인으로 추정되었다.³⁹⁾ 한국 청소년의 자살 충동 유발 원인은 낮은 정체감, 높은 학업 스트레스 및 아버지와의 접촉정도의 빈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설명하였다.⁴⁰⁾

35) <http://www.kccc.org/korean>.

36) A. Brent,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s in Review* 9, 383-401.

37) M. Wagner, E. Cole, & P. Schwaryzman, *Prediction of Suicide Attempts among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Youth*,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1993), 49-54.

38) 나동석, *자살, 청소년 문제론*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311-325.

39) 한승희, *어른들은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56.

마. 비만과 거식증

과도한 음식 섭취에서 오는 비만과 위험수준에 이르기까지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은 최근 미국 사회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기 문제 행동 중의 하나이다. 정상체중보다 약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비만이라 할 때 미국 청소년의 약 15퍼센트가 비만에 속한다. 청소년기 비만은 각종 질병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신체에 대한 지나친 자의식, 사회적 부적응, 낮은 자아존중감 등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를 수반한다. 비만의 원인으로서는 주로 과식, 잘못된 음식 선택 등의 음식습관이 문제였으나 신진대사와 관련되는 유전적 요인, 아동기 성장 과정, 정서적 스트레스 등도 원인이 되고 있다.⁴¹⁾

거식증은 청소년기 여성들에게 흔히 발견된다. 이들은 체중이 심각하게 정상 이하가 되어 생명에 위협이 올 때까지 식이요법과 운동을 계속하여, 나중에는 먹고자 노력해도 먹을 수 없는 장애에까지 이른다. 거식증 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들은 흔히 대단히 여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음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결핍, 심리적 갈등, 만성적 질환으로 인한 우울증, 심리적 의존과 미성숙, 건강에 대한 잘못된 관념 등이 거식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 여대생의 비만 정도를 진단한 연구에 의하면 20퍼센트 이상의 비만이 6-8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비만을 두려워하여 여대생의 35.4퍼센트가 아침을, 20.4퍼센트가 점심을, 18.1퍼센트가 저녁을 먹지 않는 불규칙한 섭식행동을 보고하고 있다.⁴²⁾ 또한 절식과 폭식 등 이상 섭식행동도 보고되고 있는데, 절식행동은 체중이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등 신체적 자아상과 관계가 있으며, 반면에 폭식 행동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이 낮은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⁴³⁾

40) 윤성림, 윤진, "청소년기 자살 생각과 그 관련 변인", *한국발달심리학회지*, 6권 1호, 107-120.

41) W. Crocker, & A. Goldman, *A Technique for Assessing Family Functioning in the Treatment of Childhood Obesity: The Pediatric Family Assessment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SRCO (Indianapolis, 1995), 89-93.

42) 이영미, 이기완, "여대생의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와 섭식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2권 2호, 193-205.

43) 이상선, "여대생들의 식사행동과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제 2 절 대학생의 가치관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의 하나인 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위해 일반적인 가치와 가치관에 대한 개념, 가치관 발달에 대한 이론적 접근, 그리고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가치와 가치관

일반화된 가치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의 정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상이하게 내려진 가치관의 분류를 파악하기 위해 가치관의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가. 가치의 개념

페리(Perry)는 “인간에게 흥미를 주는 것”을 가치라고 하고, 페퍼(Pepper)는 “좋고 나쁜 것 자체”가 가치라고 한다. 또한 로키치(Rokeach)는 “한 특수한 행위의 양식이나 생활의 목적 상태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반대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지속적인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⁴⁾

가치는 일반적으로 “의식구조” 속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구체적 정의를 내린다면, “자연 속의 인간의 위치, 인간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간 대 자연, 인간관계 등에서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개념이다.⁴⁵⁾ 또한 로키치는 가치를 하나의 전체적인 체계로 보고, 개인이 가진 신념체계 가운데 하나의 중심적 신념이며 개인의 인간존재의 목표 상태에 대해 추구해야 할 것과 회피해야 할 것을 구분 해 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⁴⁶⁾

대학원, 1993), 54-65.

44) 정세구, *가치·태도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배영사, 1988), 10.

45) C. Kluckhohn, *Values and Value 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In Parsons, T., & Shils, E. A.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67-69.

46) M. Rokeach,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1973), 48-52.

철학에서 가치는 가치판단의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하는 입장과 가치판단은 단지 감정이나 욕구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전자에는 가치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가치실재론자들과 가치를 인정하는 주체의 평가에 영향을 받고 생긴다고 하는 가치상대론자들이 속하고 후자에는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속한다.

나. 가치관

뉴콤(Newcomb)은 가치관을 “특정의 사물에 대한 태도들을 종합할 수 있는 공통점” 또는 “행동의 목표와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적 개념”으로 정의했다.⁴⁷⁾ 정범모는 가치와 가치관의 개념을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다. 가치란 “행동 방향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보았고, 가치관은 가치가 적용되는 범위보다 훨씬 넓고 더 일반적인 행동장면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인간 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 또는 해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⁴⁸⁾

가치와 가치관은 인간행동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첫째, 가치관은 그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크게 결정한다. 이것은 무엇을 원하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가치관의 여하는 인간의 지각과 해석을 크게 좌우한다. 즉, 사물과 장면과 상황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한 견지를 형성하게 된다. 셋째, 가치관은 인간이 인생 어디에서 그 만족과 의의를 얻느냐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재물보다는 향락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학문적인 성취, 사회적인 봉사, 예술적인 탐구에서 제 일차적인 만족과 의의를 얻는다. 넷째, 가치와 가치관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을 준다. 가치관의 문제는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즉 가치관은 사회의 구성 존속을 위해 필요한 공동 의식 형성에 필수적인 요인이 되며, 또한 그 사회의 각종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데에 불가결한 규율을 제공한다.⁴⁹⁾ 또한 가치관은 부단히 계속되는 인간행동의 흐름에 대

47) M. Newcomb, H. Turner, & E. Converse, *Social Psychology* (New York: Rinehart and Winston, 1965), 134-135.

48) 정범모, *학업성취의 요인*, 14-23.

하여 질서와 방향을 제시해 준다. 공통적인 인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복합적이면서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원칙이다.⁵⁰⁾

결과적으로 가치관은 문화적인 산물이지만 개인의 학습을 통하여 내면화되어 동기에 작용하고,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평가적 기준으로 매우 추상적인 개념과 동시에 이러한 기준은 개인의 심리적 조직을 체계화하여 행동의 통일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한다.

다. 가치관의 분류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1950년 무렵 알포트와 버논(Allport & Vernon)의 연구로 시작하여 최근 로키치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알포트와 버논은 6개의 이상적 가치 유형 즉, 이론적 가치(theoretical values), 경제적 가치(economical values), 심미적 가치(aesthetic values),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 정치적 가치(political values), 종교적 가치(religious values)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6개의 가치관 유형이 서로 다른 가치 범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조사했으나 입증하지 못하였고 또한 타 문화권에서도 이러한 가치관 유형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있다.⁵¹⁾

클라크혼과 슈트로트벡(Kluckhohn & Strodtbeck)은 문화인류학의 측면에서 가치관을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문화 구조와 가치관의 관계를 연구했으며, 이들은 가치관을 3개로 분류하였다. 첫째,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는 본래 선하다는 입장과 중립이라는 입장, 그리고 악하다는 입장으로 구별한다. 둘째, 인간의 자연관에 대해서는 자연을 정복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연과 화합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자연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별된다. 셋째, 인간의 시간관은 인간 생활의 시간적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의 문제로 과거지향, 현재지향, 미래지향으로 구별된다. 넷째, 인간의 활동관에 대해서는 존재지향, 수양지향, 성취지향으로 구별된다. 존재는 현재의 욕구가 충동을 만족시키는 것을 중시하며, 수양은 인간의 내재적 욕구를 통제하

49) Ibid., 15-20.

50) R. Kluckhohn & L. Strodtbeck, *Variations in Values Orientations* (New York: Row, Peterson, 1961), 96.

51) 정진곤, 이관춘,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 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개인의 가치와 기업체의 가치를 중심으로* (서울: 소화, 1997), 100.

고 모든 면을 개발하여 완전히 통합된 인간을 형성하는 것을 중시하고, 성취는 측정될 수 있는 성과와 업적을 중시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강조한다. 다섯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종적, 횡적, 개인적 지향으로 구별된다. 종적 지향은 집단의 문화적 계속성을 중시하고 인간관계에서 상하를 따지며 사회생활에서 지위를 존중한다. 횡적 지향은 수평적으로 확장된 집단의 목표와 복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개인적 지향성은 개인적인 목표나 역할을 우선적으로 중시한다.⁵²⁾

스핀들러(Spindler)는 미국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가치관을 전통적 가치관(traditional values)과 신생적 가치관(emergent values)으로 나누었다. 전통적 가치관에는 도덕성, 미래 지향성, 과업 지향성, 자기 독립성, 성취 지향성이 있다고 하고, 이에 반하는 신생적 가치관에는 상대적 도덕성, 현재 지향성, 집단 중심성, 타인 중심성, 사고 지향성 등이 있다고 한다.⁵³⁾

로키치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s)와 이 궁극적 가치의 달성을 위해 수단이 되는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s)로 가치를 양분하였다. 궁극적 가치에는 안락한 생활, 자극적인 생활, 성취감, 세계평화, 아름다움의 세계, 평등, 가정의 안전, 자유, 행복, 내적인 조화, 성숙한 사랑, 국가의 안전, 즐거움, 구원, 자존심, 사회적인 인정, 진정한 우정, 지혜 등 18개의 가치항목을 포함시켰으며 도구적 가치에는 양심 있는, 마음이 넓은, 능력 있는, 쾌활한, 깨끗한, 용기 있는, 관대한, 도움이 되는, 정직한, 상상력이 있는, 독립심이 있는, 지적인, 논리적인, 애정이 깊은, 순종할 줄 아는, 공손한, 책임 있는, 자제심이 있는 등 18개의 가치 항목을 포함시켰다.⁵⁴⁾

2. 가치관 발달에 대한 세 가지 이론적 접근

가치관 발달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는 세 가지 이론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이론인 정신분석학적 입장, 학습 이론적 입장, 지각적 해석에서 본 가치관 형성의 이론적

52) R. Kluckhohn & L. Strodtbeck, *Variations in Values Orientations*, 12.

53) D. Spindler, *Education in a Transforming American Culture*, In G. D. Spindler, ed., *Education and Cultur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3), 136-137.

54) M. Rokeach, *The Nature of Human Values*, 112-120.

접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가. 정신분석학적 입장

가치관의 발달을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초자아의 발달이다. 아동의 초자아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정한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개인 내적 기준과 힘을 말하며, 이러한 내적 기준과 힘은 부모가 내리는 신체적·정신적 측면에서의 처벌의 가능성에서 생겨나며, 이는 '양심' 발달의 기초가 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에 대하여 어른으로부터 처벌받는 측면 이외에, 칭찬이나 긍정적인 지도와 편달을 받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이상적 자아이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형태의 인간이 되고자 한다는 희망'이며 따라서 부모와 유사하게 되고자 한다. 이러한 초자아의 두 가지 요소인 양심과 이상적 자아는 결국 부모와의 동일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아동은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해가고 더 이상 부모의 처벌이나 승낙을 기준으로 하여 행동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성과 양심, 그리고 가치관의 발달은 성적욕구, 무의식적 갈망 등 정신분석학적 역동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나. 학습 이론적 입장

청소년이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자신이 한 경험과 받아들인 강화의 역사에 달려 있다. 이는 단순히 무의식적 동기와 초자아의 발달이란 정신분석학적 입장을 배격하고, 단순히 가치 있고 도덕적 행동을 했을 때 받게 되는 강화와 개인의 습관형성을 강조한 것이다. 즉, 자녀가 도덕적 행동을 수행하도록 부모가 애정을 갖고 가르치면 자녀도 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칭찬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훈육에 순종하지 않으면 처벌이나 애정적 거부를 받게 된다. 특히 이와 같은 행동 획득 과정은 관찰이나 모방학습을 통하게 되어 부모, 형제, 스승 그리고 또래 집단의 가치관과 도덕적 판단 및 행동을 배우게 된다. 원래 이러한 사회 학습 대상은 부모에 국한되었으나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해감에 따라 형제, 또

래 집단, 기타 모범이 될 만한 인물로 점차 확대되어 간다.

이러한 관찰학습 기제에서는 반드시 직접적 강화나 처벌을 통한 학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인 경험과 강화 즉, 다른 사람이 착한 일을 하여 상을 받거나 나쁜 짓을 하여 벌을 받는 것을 보고, 청소년자신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학습 과정에서도 반드시 자신이 착한 일을 하여 상을 받거나 나쁜 일을 하여 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러한 과정은 '대리적 강화'와 '대리적 처벌'의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대리적 학습과정을 통하여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처벌받을 행동은 억제되고 바람직하고 보상받을 만한 행동은 더욱 촉진된다.

특히 학습 이론적 입장에서 기독교 교양교육에서의 구체적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사회가치관의 교과 내용을 적용한다면 획기적인 어떤 변화보다는 건전한 정체감을 가질 수 있게 도울 수 있으며 이러한 정체감은 자신의 삶의 긍정적 가치관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지각적 해석(장의 이론)에서 본 가치관 형성

가치관의 발달은 지각적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것으로서 전통적인 형태심리학, 특히 개인의 동기와 지각과의 관계를 다루는 여러 가지 고전적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맥키니(Mckinney)는 가치관 형성에 있어 행동 주체자인 당사자의 "환경에 대한" 지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능동적 주체인 청소년은 주위환경에 있는 가치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환경으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게 되며, 그 환경의 피드백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된다.⁵⁵⁾ 이것은 마치 인지과정에서 도식이 형성되는 과정과 같다. 즉, 유기체 자신의 신체운동이 중추신경계에 어떻게 표상 되는가에 따라 개인의 신체이미지가 달리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신체의 각 부위가 상호 연관되어 음

55) P. Mckinney, "The Structure of Behavioral Value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y* 85, 235-244.

직이는 형태나 몸의 자세 등을 중추신경계가 먼저 표상되어, 이것이 그 본인에게 자기 신체에 각 부위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피드백 시켜준다.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청소년은 외부적인 통제로 인하여 그런 관계를 잘 지각하지 못하는 청소년 보다 더 강력한 가치체계를 갖게 된다.⁵⁶⁾

3.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대학생의 일반적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심리적 의식구조에 대해 고찰하고,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을 일본 대학생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 청소년의 의식구조

근대화,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며 이질적인 외래문화의 접촉이나 급속한 사회변동이 진행되면서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상황이 발생되고, 이러한 변화된 구조 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생활태도나 의식구조를 형성함에 있어 서구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특성들을 지니게 된다.

(1) 물질주의적 성향

산업화를 거치며 비교적 물질적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성장한 청소년의 의식구조의 대표적 특징은 물질주의로 집약될 수 있다.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청소년들은 '절약이 미덕'인 시대가 아닌 '소비가 미덕'인 시대에 성장하고 있으며⁵⁷⁾, 이러한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현실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황금만능의 물질주의를 그들 의식구조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논리를 충분히 수용하고 자라난 청소년들은 내가 번 돈을 마

56) P. Mckinney, "The Structure of Behavioral Values of College Students," 235-244.

57) 문용린, *신세대의 이해-그들의 의식과 유형*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1996), 285.

음대로 쓰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개인주의적 소비의식과 실용적인 것보다는 모양과 멋있는 것을 구입한다는 감각주의적 소비양태를 지니게 되어 이기적 개인주의와 감각적 현실지향주의 양상을 아울러 띠게 된다.

(2) 이기적 개인주의 성향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의 주요한 특징인 집합적 가족주의, 혈연중심의 공동체주의의 가치성향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서구적 가치관인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개인을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려는 계몽주의 사상에서 출발된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달리,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외면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이기주의로 변질되어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왜곡된 이기적 행동양식은 전통적인 집합주의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이 벗어나 있는 청소년 세대에 한층 두드러진다. 기성세대는 상대적으로 개인보다는 가족, 친족, 회사 등 개인이 속한 집단을 더 중시 여겨 집단의 목표를 위해서는 개인적 가치가 희생되어도 좋다는 의식이 더욱 지배적이거나, 청소년세대는 집단목표에의 충성이나 공동체에의 동일시 감정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어 개인적 가치추구에 더 큰 비중을 둠으로써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가치성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기성세대와의 갈등적 성향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사회 문화적 환경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질적인 차이가 생겨난다. 세대 차로 불리어지는 이러한 사회현상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갈등과 긴장의 원인이 되거나, 개인적 또는 사회적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세대 차는 단순한 차이보다는 격차로서 이해되어지며⁵⁸⁾, 여기에 많은 갈등과 긴장이 내재되어 있다. 청소년 세대는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행위 양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비합리적이므로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서는 부적합하다고 느끼며, 한편 기성세대는 청소년세대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너무 진보적이고, 때론 급진적이며 이상주

58) 임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 1994), 229.

의적이므로 궤도를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대간의 격차는 서로에 대한 비판적 태도, 갈등, 마찰을 유발할 뿐 아니라 불신과 단절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4) 현재 지향적 성향

이미 산업화된 사회에서 기성세대가 이루어 놓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장래의 목표를 위해 현재의 욕망 충족을 기꺼이 희생하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현재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며 쾌락주의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회생을 요하는 힘든 일은 기피하며, 자아실현의 영역을 여가생활의 영역에까지 확장시켜 여가를 더 가지려 하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려는 가치관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들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현재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해 서구의 향락적인 문화패턴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물질을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의 문제점은, 인생의 목표를 낮추고 진취적이지 못하다는 것 이외에 자신의 현재중심의 쾌락주의를 부도덕하고 도피적인 것이 아닌 바람직한 삶의 목표가치로 추구하여 문제 상황과 부적응 행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나.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한·일 대학생의 가치관 비교 연구⁵⁹⁾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일본 대학생들에 비해 자기 지향적 가치관(self-oriented values)과 가족 지향적 가치관을 더 중요시하였고, 일본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에 비해 타인 지향적 가치관(other-oriented values)을 더 중요시하였다. 다시 말해, 가치관에 있어서 한국 대학생들은 '자기→가족→타인→사회' 순으로 중요시하는 반면, 일본 대학생들은 '자기→타인→가족→사회' 순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중 목적적 가치관에서 조사 대상 한국 대학생의

59) 최홍국, 스스무히바라야시, "한·일 대학생의 가치관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0권 1호, 3-29.

82.2퍼센트는 '자아실현, 자기 성취'를 가장 중요한 다섯 개의 가치 항목 중 하나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직업'(69퍼센트), '가정의 화목'(62퍼센트), '절친한 친구, 진정한 우정'(46퍼센트),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44.8퍼센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44.8퍼센트), '이성과의 사랑'(44.2퍼센트) 순이었다. 반면에 '사회적 지위나 명예', '공동의 이익 추구, 공동체 의식',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등의 중요도는 다른 가치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도구적 가치관 12개 항목의 중요도 순위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한국 대학생의 78.5퍼센트는 '소신 있는 생활, 나만의 신념이나 주관을 갖고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다섯 개의 가치 항목 중 하나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사는 것'(77.3퍼센트), '긍정적인 사고'(72.7퍼센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함, 상호이해'(60.4퍼센트), '책임 완수, 자기소임에 충실함'(54.3퍼센트),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33.7퍼센트)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목적적 가치관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 대학생은 자기 지향적 가치관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신 있는 생활, 나만의 신념이나 주관을 갖고 사는 것'이나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사는 것'과 같이 타인의 기대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에 의한 생활 방식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판단이나 결정을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가치판단과 결정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 교양교육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 절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

가치관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종속 변인인 대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여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진로와 직업의 개념적 정의, 발달의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는 진로발달이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진로성숙이론, 진로성숙을 위해 필요한 진로정보에 대한 고찰과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의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 진로지도를 위한 성격유형 검사를 적용하기 위해 MBTI 성격유형 검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진로와 직업의 정의

진로란 한 개인이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거쳐 가는 모든 체험을 의미한다. 진로는 개인이 가졌던 직업으로서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과 관련된 그의 태도, 동기, 행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진로계획, 직업탐색, 일의 세계에 대한 태도와 지식, 직업에 대한 만족도, 승진, 직무에 대한 동기, 직업변경 등이 모두 진로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

직업이란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일을 의미하는데, 진로는 이런 보수가 있는 직업뿐만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는 일 예컨대 자원봉사, 복지사업, 가사일, 정치운동 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는 직업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2. 진로발달이론

개인의 진로는 발달되는 것으로서 특성요인이론, 욕구이론, 발달이론, 정신분석이론, 의사결정이론 등의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진로발달의 구체적인 이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가. 특성요인이론

특성요인이론은 생의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으로서 개인차 심리학과 응용심리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09년에 파슨즈(Parsons)에 의해 기초가 마련되었고, 1950년에 윌리엄슨(Williamson)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어 이 이론에 입각한 상담전략이 제시되었다.⁶⁰⁾ 이 이론은 고도로 개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인과 직업을 연결시켜주는 것으로서 과학적인 측정방법을 통해 개인의 인성특성을 식별하여 직업특성에 연결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성요인이론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직업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60) 김충기, 김현옥,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6), 30.

중시하고 있다. 즉 개인의 적성, 지능, 사회경제적 지위, 흥미, 가치관, 성격 등에 관한 과학적인 자료를 개인에게 제시해 주고 직업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해 주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조력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진로 발달에 있어서 특성요인 이론은 생활지도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성 요인 이론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첫째, 직업발달은 추리에 의해서 결정이 도출될 수 있는 인지과정이다. 둘째, 직업선택은 발달보다는 선택 자체를 강조하는 단일한 일이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의 적절한 직업이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에 적합하다고 보지 않는다. 넷째, 각 직업에는 단일한 형태의 사람이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직업에서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의 특성이 제한되어 있다. 다섯째, 직업선택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본질적으로 특성요인이론은 개인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엄격하고, 과학적이고, 고도로 개별화된 이론이다. 특히 흥미검사, 적성검사, 학력검사와 같은 심리측정 도구의 발달은 더 한층 특성 요인 이론에 의존하게 하고 있다.

나. 욕구이론

욕구이론은 직업선택이 개인의 욕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론으로 설명되어진다.

(1) 로(Roe)의 욕구이론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욕구가 직업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아동기에 형성된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서 직업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954년에 매슬로우(Maslow)가 제시한 욕구의 단계⁶¹⁾를 기초로 해서 초기의 인생경험과 직업선택과의 관계에 대한 일곱 가지 가정을 발전시켰다.⁶²⁾ 로는 여러 가지 다른 직업에 종

61) 김성국, *조직과 인간행동* (서울: 명경사, 1997), 132.

매슬로우(Maslow)는 1954년 임상적 관찰을 통하여 인간의 욕구단계를 5가지로 나누어 욕구가 계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인간의 욕구를 강도에 따라 제 1단계는 생리적 욕구, 제 2단계는 안전 욕구, 제 3단계는 소속감과 애정 욕구, 제 4단계는 존경 욕구, 제 5단계는 자아실현 욕구로 나누었다.

62) A. Roe & M. Siegelman, *The Origin of Interests* (Washington D.C.: American

사하는 사람들은 제각기 명확하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격의 차이는 어려서의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기인한다는 개념을 이론화하고 또 연구하였다.

(2) 홀랜드(Holland)의 인성이론

이 이론은 개인의 행동양식이나 인성유형이 직업선택과 발3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성격은 현실적(realistic), 탐색적(investigative), 예술적(artistic), 사회적(social), 기업적(enterprising), 인습적(conventional) 등의 여섯 가지 유형 중의 하나로 구분될 수 있으며 환경도 같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의 성격과 환경 유형이 일치할 때 가장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다.⁶³⁾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성격과 환경 특성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직업의 만족, 안정성, 이동성 등은 개인의 성격과 직업적 환경이 일치하는 정도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선택을 개인의 타고난 유전적 소질과 문화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의 소산이라고 보았는데, 여기서 문화적 요소란 동료, 부모, 중요한 타인, 그리고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 물리적 환경 등을 의미한다.⁶⁴⁾

(3) 호포크(Hoppock)의 구성이론

이 이론은 직업선택에 대한 복합적인 성격이론을 발전시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직업이 선택되며, 우리가 선택하는 직업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리라고 믿는 것이다. 진로선택을 바꿈으로 우리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을 때 항상 바꾸게 된다.

다. 발달이론

발달이론은 인간 발달의 개념을 진로지도에 도입한 것으로 진로발달을 개인의 전체 발달의 한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입장이다. 다음과 같은 이론들이 대표적이다.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1964), 5-6.

63) 김충기,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서울: 배영사, 1986), 60.

64) 이정근,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1978), 41.

(1) 진즈버거(Ginzberg)의 직업발달이론

이 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발달하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도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는 것이다. 즉 한 번에 끝나는 의사결정이 아니고 여러 해에 걸친 일련의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역행할 수 없는 발달과정이라는 것이다. 진로발달의 단계를 환상기(fantasy period: 11세까지), 잠정기(tentative period: 11-17세), 현실기(realistic period) 등으로 구분하였다.⁶⁵⁾

(2) 슈퍼(Super)의 직업발달이론

슈퍼의 직업발달이론은 진즈버거(Ginzberg)의 직업발달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된 이론으로 진로발달이론 중에 가장 포괄적인 이론이다. 슈퍼는 이론보다는 접근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그는 자기의 이론을 직업에 대한 '변별·발달·사회적·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 하였다. 이 접근법은 직업생애단계, 직업성숙도, 자아개념의 직업 자아개념으로의 전환, 진로유형 등의 네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성장기(growth stage: 14세까지), 탐색기(exploration stage: 15-24세), 확립기(establishment stage: 24-44세), 유지기(maintenance stage: 45-64세), 쇠퇴기(decline stage: 65세 이후) 등으로 구분했다.⁶⁶⁾

(3) 트리트만(Tiedeman)과 오하라(O'Hara)의 진로발달이론

진로발달을 직업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새로운 경험을 쌓을수록 개인의 정체감은 발달된다.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며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직업정체감의 형성에 중요한 기초요인이 된다. 이 이론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해 가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개인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의사결정의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단계들을 예상기(anticipation period)와 적응기(adjustment

65) E. Tolbert,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1980), 47-48.

66) Ibid., 42-44.

period)로 구분하고 있다. 예상기는 다시 탐색기, 구체화기, 선택기, 명료화기로 그리고 적응기는 다시 순응기, 개혁기, 통합기의 하위단계로 나누어진다.⁶⁷⁾

(4) 크리테스(Crites)의 직업발달연구

슈퍼와 함께 진로유형연구를 수행하면서 크리테스는 직업성숙의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슈퍼의 직업선택이론에서의 일관성과 현실성 영역에 직업선택의 태도와 능력의 영역을 첨가하여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는 이 검사의 명칭을 직업 발달도검사(Vocational Development Inventory)라고 명명했으나 진로란 말이 직업이란 말보다 포괄적이고 성숙이 발달보다 적절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여 진로성숙도검사(CMI: Career Maturity Inventory)라고 수정하고 그 내용도 보완하였다.⁶⁸⁾

라. 정신분석이론

진로발달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법에서는 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이론을 도입하여 그 이론적 기저를 세우고 있다. 정신분석이론(Psychoanalytic Theories)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발달은 지속적이다. 유아기의 단순한 심리적, 생리적 과정은 성인이 된 후의 복잡한 지적, 신체적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둘째, 개인의 욕구 유형은 대체로 출생 후 5, 6년 사이에 결정된다. 개인이 추구하는 직업은 출생 후 5, 6년 사이에 결정된다. 셋째, 만족을 추구하는 본능은 유아기의 단순행동처럼 성인기의 복잡한 행동에서도 나타난다. 넷째,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이란 유아적 충동을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행동으로 승화(sublimation)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모든 직업은 욕구충족의 일환으로 기술될 수 있다.

정신분석이론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지만 직업선택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타당한 실증적 자료들을 얻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일을 욕구충족의 시각에서만 보고 기타 경제적, 문화

67) E. Tolbert,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50-51.

68) O. Crites,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Monterey, CA: CBT/McGraw-Hill, 1978), 1.

적, 사회적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 의사결정이론

의사결정은 모든 이론에서 다루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이론은 의사결정의 개념과 과정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겔러트(Gelatt)는 상담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학생들로 하여금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가정 하에 결정은 결과만 가지고 평가될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과정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모든 결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을 제안하기를 첫째로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 둘째로 두 개 이상의 대안을 놓고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초로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한다.⁶⁹⁾

이상의 진로 발달이론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지만 개인의 진로 발달에서는 각각의 이론들이 개별적으로 적용된다기보다는 성격, 적성이 강조되는 특성요인이론, 앞으로의 진로와 직업선택과 관련된 개인적 욕구를 증시한 욕구이론, 개인의 발달 측면에서 보고자하는 발달이론,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서 전개한 정신분석이론, 진로나 직업의 선택에 있어 개인의 의사결정 부분이 중요함을 강조한 의사결정이론은 진로의 선택과 발달을 위해 총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성된 교과과정 내용에는 자기 성격 유형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격유형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특성요인을 적용하였고, 진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자기이해, 진로정보의 습득을 통해 개인들의 진로 태도에 발달을 모색하는 발달이론을 특히 강조하여 구성되어졌다.

3. 진로성숙

진로성숙은 1953년 슈퍼가 소개한 직업성숙(vocational maturity)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착되었으나 개념적 정의는 학자마다 다소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슈퍼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해 취하고 있는 행동이 그가 속한 연령층에

69) E. Tolbert,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76.

기대되는 행동과 얼마나 일치되는가에 의해 파악되는 것으로서 그 일치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는 높은 것이며, 진로성숙도는 진로의 발달 수준을 뜻하는 것으로 직업을 알아보고, 준비하고, 자리 잡고, 종사하고, 직업에서 물러날 때까지의 발달과업에 대처해 나가는 태도적, 인지적인 준비라고 하였다.⁷⁰⁾ 김충기는 개인의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직업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낳는 과정을 직업 발달이라고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결과를 진로성숙이라 하였다.⁷¹⁾ 크리테스는 진로성숙도를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이 직업 준비의 정도로 개념화하였다.⁷²⁾

이상에서 진로성숙도란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 조정해 나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각 발달 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발달 과업이 있는데 발달과업의 인지 및 수행 여부가 다음 단계로의 발달을 촉진시키며 이해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진로성숙도 검사에는 진로발달의 이론적 모델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진로발달과 직업 또는 진로성숙도의 측정 및 학생들의 교육 및 진로계획수립에 도움을 주고 진로결정을 위한 준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진로발달도구(CDI: Career Development Inventory)가 있는데 이것은 중·고등학생들을 위하여 제작된 학교용과 고등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학교용 등 두 가지 양식이 있다. 두 가지의 검사 양식간에는 구조나 논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검사 대상의 교육적 수준이나 진로발달 정도가 상이하므로 문항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진로성숙도 검사도구로 진로 선택에 관한 태도와 의사결정 능력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진로성숙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척도로서 진로성숙 검사도구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점수화되고 표준화된 진로발달 측정도구로서 최초로 개발된 것이다. 검사의 명칭을 직업발달도검사(Vocational Development Inventory)에서 진로란 말이 직업이란 말보다 포괄적이고 성숙이 발달보다 적절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여 진로성숙도검사라고 수정하였다.

70) E. Super, J. Donald, & O. Crites, *Appraising Vocational Fitness* (Delhi: Universal Book Stall, 1963), 67-68.

71) 김충기,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62-63.

72) E. Super, J. Donald, & O. Crites, *Appraising Vocational Fitness*, 1-2.

진로성숙도 검사도구는 진로선택 과정에 대한 피험자의 태도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적 반응경향성을 측정하는 태도 척도와 진로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식영역, 즉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 및 문제해결 등 5개 영역을 측정하는 능력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성숙도는 CMI 척도를 김현옥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 중에 태도척도만을 사용하여 진로성숙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 타협성 등 5가지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⁷³⁾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 관여성은 진로선택 과정에서의 능동적 참여의 정도, 독립성은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성향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의 전도, 타협성은 진로 선택 시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4. 진로정보

개인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진로와 관련된 총체적 정보가 요구되어진다. 진로정보에는 성격, 적성, 흥미 등 개인 자신에 대한 내적 정보,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 및 진로 준비에 관한 외적 정보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진로정보를 확인하고 교육과 상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가. 개인자신에 대한 진로정보(내적 정보)

자신에 대한 정보는 진로나 직업과 관련해서 자기의 생각, 감정, 능력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이해가 정확하지 못하면 개인이 선택한 진로나 직업에 불만족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인자신의 내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

73)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 *심리척도 핸드북 II* (서울: 학지사, 2000), 223.

(1) 능력과 적성

능력과 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로 일반 지능검사, 적성검사, 학교성적, 각종 시험 성적, 교사나 부모의 평가 등이 정보로 활용된다. 능력과 적성 분석을 위해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직업 계통에 적성이 있는지 아는 것은 개인의 직업 능력과 매우 상관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실시되는 적성검사로는 적성종합검사, 진로적성검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흥미

직업 흥미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주로 하는 활동을 좋아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흥미는 본인이나 가족을 통한 면담에 의해서도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직업과 관련된 흥미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되고 일반화된 검사를 활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선호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직업과 진로만족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성격

인간의 성격은 직업선택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개인의 성격유형과 성격특성에 따른 직업만족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격을 측정하는 척도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표준화된 성격검사지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자신의 선호 경향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격유형검사로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성격유형 검사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필자도 본 연구에서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4) 욕구와 가치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개인의 포부 혹은 욕구를 느끼는 분야나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기를 원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진로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이 직업이나 일의 세계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여기며 우선순위를 두는 가치는 어떤 것들인지 아는 것도 필요한 정보이다. 욕구, 포부,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로 면담이나 질문지를 사

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가치관과 진로태도 및 성숙도와는 상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대학생의 가치관 교육을 위한 교과내용이 적용되었다.

(5) 진로성숙

진로성숙은 진로에 관한 개인의 의식, 태도, 가치, 능력의 성숙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이 선택해야할 진로나 직업에 대한 성숙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진로 성숙요인으로는 앞에서 기술한 개인의 능력과 적성, 흥미, 성격특성, 욕구와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직업 및 준비에 관한 정보(외적 정보)

외적 정보는 개인이 속한 나라와 그 사회에 어떤 직업 유형이 있는지,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개인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그런 능력과 자격을 얻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교육기관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또는 개인이 습득해야할 것 등으로 개인 내적인 요인들만큼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선택하고 가고자 하는 직업 준비에서 가장 실제적 준비가 된다.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외적정보는 직업 정보와 관련된 책자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의 현실

한국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지도의 현실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로와 관련된 문제점을 입시위주의 진로지도, 부모중심의 결정,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왜곡된 직업의식,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가. 입시위주의 진로지도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학업성적이다. 학업성적이 좋아야 내신등급도 좋게 받고 수학능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미 학생의 모든 활동은 입시준비로 한정되게 된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대학 졸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길만이 출세하는 길이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길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의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학에 진학하려 한다. 학생의 적성이나 취미를 고려해서 전공을 정하기보다는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열된 입시경쟁의 상황이 학교나 가정에서 정상적인 진로지도를 수행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진로지도를 진학지도로 제한시키고 있고 그것도 대학의 합격만을 고려한 입시지도로 전략해 버렸다. 따라서 학생 자신의 특성을 발견해서 이해시키고 또 일의 세계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진로지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부모중심의 결정

부모들은 자녀의 능력이나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부모의 가치기준에 의해서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는 경향은 다음과 같은 데서 그 원인을 들 수 있다.⁷⁴⁾

첫째, 권위주의적인 양육 형태이다. 자식을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자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부모가 결정해서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다. 둘째, 과잉보호적인 양육 형태이다. 우리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을 부모의 도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부모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

74) 이재창, "진로교육 발전방안 탐색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 (1994), 80-119.

고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높게 평가하여 기대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부모의 투사행위이다. 부모의 욕구를 자녀를 통해서 충족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부모는 자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부모의 가치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다.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신에 대한 이해는 첫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과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잠재력을 이해하는 것, 둘째, 나의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의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부족한 형편이다.

라. 왜곡된 직업의식

기성사회에 팽배해 있는 부정적인 가치관들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유입되고 있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적 성향과 요령 및 편법주의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가치관은 직업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직업관을 보면 다음과 같다.⁷⁵⁾

첫째, 일을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수단으로 여기는 견해이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 일을 하는 것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거나 출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면 자기의 취미나 적성을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 자체에서 얻는 의미나 즐거움을 맛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태도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외적인 목적에 따라 아무 일이나 하게 되고, 또 수시로 직장을 옮겨다니게 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일 수행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게

75) 이재창, 진로교육연구 2, 80-100.

된다.

둘째, 일과 직업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한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직업은 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편견이 소위 인기학과와 인기 직업을 만들어 놓고 누구나 이를 선호하도록 부채질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 흥미 등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인기학과나 인기 직업만을 선택하여 인생 자체를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셋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들 수 있다. 요즘은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아직도 강하다. 여성이 할 일과 남성이 할 일을 구분하여 그 선택의 폭을 제한시키고 있다. 이는 남성위주의 전통적 사회에서 형성된 성역할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진로를 선택하려면 우선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그리고 나서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일, 즉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우선 직업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직업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러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개인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직업을 택해서 능률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일의 세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기 전공학과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무조건 입학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실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전공 학과에 대해서 취미를 잃고 방황하게 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6. 진로성숙을 위한 진로지도⁷⁶⁾

본 연구자는 대학생의 진로성숙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진로교육의 내용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틀을 가지고 기독교 교양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내용으로 구성한 것을 논의하고자 한다.

가. 직업적 역할과 자아인식

직업적 역할과 자아인식에 대한 교육으로는 개인의 특성과 속성 인식, 개인의 존재 가치성 인식, 진로계획에 관련된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탐색, 직업가로서의 가치 인식, 협동적 직무성취의 중요성 인식, 일의 가치와 인성적 가치체계와 통합, 취미와 여가 활동 능력 개발 등이 포함된다.

나. 일의 세계에 대한 인식

일의 세계에 대한 인식 교육의 내용은 직업의 종류 및 특성에 관한 인식, 직업들 간의 상호관계 인식, 다양한 직업군과 직업영역에 대한 탐색, 직업세계의 구조와 기능 인식, 직업적 기술과 지식 습득, 직업가치의 탐색, 직업과 관련된 개인적·환경적 요인의 탐색, 생산적 시민으로서의 자질 개발 등이 포함된다.

다. 일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습득

일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습득에 대한 교육은 일, 학교, 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함양, 일의 소중함과 존엄성 인식, 진로동기의 유발, 모든 직업 및 직업인에 대한 존경심 고취, 적절한 직업태도와 습관 개발, 일을 통한 사회적 충족 및 만족감 고취, 직업적 일체감 개발 등이 포함된다.

76) 이춘재 외,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5), 274-277.

라.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는 책임과 융통성 있는 진로계획의 수립, 진로정보의 파악 및 능력 개발, 취업기회에 대한 지식 제공, 합리적인 진로선택 능력 개발,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의 강화 등이 포함된다.

마. 원만한 인간관계 기술 습득

원만한 인간관계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으로는 협동적 작업 경험 획득, 진로프로그램간의 협동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의 경험제공,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형성, 직업사회에서의 집단행동의 역동성 인식, 대인관계 조절 기술의 개발 및 활용, 상호 의사소통의 능력 개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바. 일과 직업의 경제적 측면 이해

일과 직업의 경제적 측면 이해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과 일과의 관련성 인식, 일을 통해 얻는 보수의 의미 인식, 사회 경제적 변화와 직업의 변화 인식, 생산자와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인식, 기본적인 경제 조직과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된다.

사. 교육과 일의 세계와의 관계 인식

학교와 사회에서의 교육의 계속성 인식, 진로발달의 한 부분으로써 교육적 경험 이해, 다양한 진로와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준비의 이해, 교육적 경험을 토대로 한 직업적 능력 개발, 교육적 경험과 직업적 경험의 통합, 진로활동과 교육과정과의 결합 등이 교육 내용으로 포함된다.

7. 효과적 진로지도를 위한 성격유형검사

진로계획을 세울 때 우선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자신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자신의 적성과 흥미는 어떠한지, 자신의 다른 심리적 특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만 올바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자신의 흥미나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MBTI를 통해 자기탐색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진로 선택과 태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 한 MBTI 성격유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가. MBTI의 이해

융(Jung)의 심리유형이론에 근거하여 마이어스(Myers)와 브리그스(Briggs)가 연구 개발한 성격유형지표로서 자신과 타인의 성격역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성격유형 선호경향검사이다. MBTI는 개인의 선호성 즉, 개인이 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더 쉽고 편안하게 사용하는 타고난 경향성을 측정한다. 따라서 MBTI는 자신의 성격특성을 이해하고, 성격유형에 따른 개인차를 인식하게 되는 비 진단 검사이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MBTI는 김정택, 심혜숙에 의해 번역과 정 및 엄격한 표준화를 거쳐 사용되고 있다.⁷⁷⁾

MBTI는 성격의 성숙성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며 선천적 경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이고, 건강하게 기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표준화된 검사 도구로서 MBTI에서의 선호경향 지식은 개인의 삶의 양식 전반에 활용되어진다. 즉 자신의 삶의 목표를 결정하고, 또한 가장 흥미롭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교육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사용되어지고, 배우자, 가족, 고용인, 동료 등 자신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배우는 것에도 사용된다.⁷⁸⁾

EI지표는 외향적 사람인가 내향적인 사람인가를 밝히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외향성(E)의 사람은 주로 외부세계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바깥사람이나 사물

77) 김정택, 심혜숙, *MBTI 질문과 응답*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5), 69.

78) S. Hirsh and J. Kummerow, *성격유형과 삶의 양식*, 심혜숙, 임승환 역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7), 10-11.

에 대해 인식과 판단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띤다. 반면에 내향성(I)의 사람은 주로 자기 외부세계로 향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인식과 판단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띤다. SN지표는 양극단의 두 가지 인식방법 중에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감각형(S)의 사람은 감각을 통해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관을 통한 관찰가능한 사실이나 사건을 더 잘 인식한다. 반면에 직관형(N)의 사람은 덜 분명한 직관을 통해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식의 영역을 넘어서서 어떤 사실이나 사건의 이면에 감추어진 의미나 관계 또는 가능성을 더 잘 인식한다. TP지표는 판단을 할 때 양극단의 두 경향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사고형(T)의 사람은 주로 사고를 통한 논리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려 하고 반면에 감정형(F)의 사람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감정에 따라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JP지표는 외부세계에 대처에 나갈 때 주로 사용하는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판단형(J)의 사람은 외부세계에 대처해 나갈 때 판단과정(사고나 감정)을 주로 사용하고 반면에 인식형(P)의 사람은 인식과정(감각이나 직관)을 주로 사용한다.⁷⁹⁾

성격유형 검사에서 개인은 이상의 4가지 선호지표 가운데 쉽고 편안한 쪽을 선택한다. 이것이 그 사람의 선호유형으로 표현되면 MBTI 4가지 선호경향이 조합되어 <표 2>와 같이 16가지 성격유형을 만들어 낸다.

<표 2> MBTI 16가지 성격유형 도표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P
ESTJ	ESFJ	ENFJ	ENTJ

ISTJ(사고를 보조기능으로 가진 내향적 감각형)형은 신중하고 조용하며 집중력이 강하고 매사에 철저하다. 구체적, 체계적, 사실적, 현실적인 것을 선호하며 신뢰할 만하다. 만사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려고 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성취해야 한다고 생

79) S. Hirsh and J. Kummerow, *성격유형과 삶의 양식*, 11.

각하는 일이라면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ISTP(감각을 보조기능으로 가진 내향적 사고형)형은 차분한 방관자이다. 조용하고 과묵하며, 절제된 호기심을 가지고 인생을 관찰하고 분석한다. 때로는 예기치 않게 유머 감각을 보인다. 대체로 인간관계에 관심이 없고, 논리적인 원칙을 따라 사실을 조직화하기를 선호한다.⁸⁰⁾

ESTP(사고를 보조기능으로 가진 내향적 감각형)형은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능하고 어떤 일이든 즐길 줄 안다. 기계를 다루는 일이나 운동을 선호하고 친구 사귀기를 좋아한다. 적응력이 강하고 관용적이며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ESTJ(감각을 보조기능으로 가진 외향적 사고형)형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다. 기계를 다루는 것에 재능을 타고난다. 실용성이 없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나 필요할 때 적절히 응용할 줄 안다. 또 활동을 조직화하고 주도해 나가기를 선호한다.⁸¹⁾

ISFJ(감정을 보조기능으로 가진 내향적 감각형)형은 조용하고 친근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맡은 일에 헌신적이다. 어떤 계획의 추진이나 집단에 안정감을 가져다주며 매사에 철저하고 성실하며 정확하다. 기계분야에는 관심이 적고 동정심이 많으며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다. ISFP(감각을 보조기능으로 가진 내향적 감정형)형은 말없이 다정하고 친절하고 민감하며 자기 능력을 뽐내지 않고 겸손하다. 의견의 충돌을 피하고 자기 견해나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앞에서의 주도보다는 충실히 따르는 편이며 일하는 데에도 여유가 있다.⁸²⁾

ESFP(감정을 보조기능으로 가진 외향적 감각형)형은 사교적이고 태평스럽고 수용적이며 친절하다. 만사를 즐기는 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에 재미를 느끼게 한다. 주위에 별어지는 일에 관심이 많아 끼어들기를 좋아한다. 건전한 상식이나 사물 뿐 아니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ESFJ(감각을 보조기능으로 가진 외향적 감정형)형은 마음이 따뜻하고 이야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양심이 바르고 남을 돕는 데에 타고난 기질이 있으며 집단에서도 능동적인 구성원이다. 조화를 중시하고 인화를 이루는데

80) B. Myers and H. McCaulley, *MBTI 개발과 활용*,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역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5), 56.

81) Ibid.

82) Ibid., 57.

능하다. 항상 남에게 잘 해주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에 가장 관심이 많다.

INFJ(감정을 보조기능으로 가진 내향적 직관형)형은 인내심이 많고 독창적이며 필요하거나 원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이루려고 한다. 자기 일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타인에게 말없이 영향력을 미치며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확고부동한 원리원칙을 중시한다. INFP(직관을 보조기능으로 가진 내향적 감정형)형은 정열적이고 충실하나 상대방을 잘 알기 전까지는 이를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 학습, 아이디어, 언어, 자기 독립적인 일에 관심이 많다.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 내기는 하지만 일을 지나치게 많이 벌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⁸³⁾

ENFP(감정을 보조기능으로 가진 외향적 직관형)형은 따뜻하고 정열적이고 활기에 넘치며 상상력이 풍부하다. 관심이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척척 해낸다. 자기 능력을 과시한 나머지 미리 준비하기보다 즉흥적으로 덤비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이유라도 갖다 붙이며 부단히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선다. ENFJ(직관을 보조기능으로 가진 외향적 감정형)형은 주위에 민감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중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맞추어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편안하고 능란하게 계획을 내놓거나 집단을 이끌어 가는 능력이 있으며 남의 칭찬이나 비판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INTJ(사고를 보조기능으로 가진 내향적 직관형)형은 대체로 독창적이며 자기 아이디어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관심을 끄는 일이라면 남의 도움이 있든 없든 이를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능력이 뛰어나다. 회의적, 비판적, 독립적이고 확고부동하며 때로는 고집스러운 경향이 있다. INTP(직관을 보조기능으로 가진 내향적 사고형)형은 조용하고 과묵하며 이론적 과학적 추구를 즐기며 논리와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선호한다. 사람의 모임이나 잡담에는 관심이 없으며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다.⁸⁴⁾

ENTP(사고를 보조기능으로 가진 외향적 직관형)형은 민첩하고 독창적이며 안목이 넓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의욕이 넘치며 새로운 문제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달변이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세부적인 면은 지나치

83) B. Myers and H. McCaulley, *MBTI 개발과 활용*, 57.

84) Ibid., 58.

는 경향이 있다. ENTJ(직관을 보조기능으로 가진 외향적 사고형)형은 열성이 많고 솔직하고 단호하며 통솔력이 있다. 정보에 밝고 지식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많으며 실제의 자시보다는 긍정적이거나 자신 있는 듯한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다.⁸⁵⁾

MBTI의 4가지 선호경향 중 인식기능(S, N)과 판단기능(T, F)을 조합하여 직업 선정을 고려하여 기능별 성격유형 또는 업무처리 성격유형이라 하여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는 인간관계를 맺는 양상이나 일 처리의 양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낸다. 각 기능별로 본 성격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ST(감각적 사고형)형은 인식할 때 주로 감각에 의존하고 판단할 때에는 주로 사고를 사용한다. 사실에 관심을 두고 감각을 통해 수집하고 증명하며 논리적인 분석에 의해 결정을 내린다. 이 유형은 사실적이고 실질적이다. SP(감각적 감정형)형은 인식할 때에는 주로 감각을 사용하지만 판단할 때에는 감정을 선호한다.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개인의 주관성이나 개인적인 온정을 바탕으로 한다. 이 유형은 사물에 대한 사실보다는 사람에 대한 사실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⁸⁶⁾

NF(직관적 감정형)형은 판단할 때 감정을 사용하는 온정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인식할 때에는 감각보다 직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새로운 일에 대한 가능성,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알려질 수 있는 진리와 같은 것에 관심이 많다. 또한 이들은 전형적이고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다. 또한 직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실 이면에 깔려있는 양식, 상징적 의미, 이론적 관계 등에 관심이 많다. 이 유형은 따뜻한 온정과 헌신으로 가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으면서도 정열적이다. NT(직관적사고형)형은 인식할 때 직관의 사용을 선호하지만 판단할 때에는 사고의 객관성을 중시하고 가능성, 이론적 관계, 추상적인 양식에 초점을 맞추지만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⁸⁷⁾

MBTI의 네 가지 선호경향 중 인식기능(S, N)과 외부세계의 대처양식(J, P)을 조합하여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기질유형이라고 한다. 네 가지 기질에 대하여 직업 선

85) 김정택, 심혜숙,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성*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5), 4-35.

86) B. Myers and H. McCaulley, *MBTI 개발과 활용*, 56.

87) Ibid., 57-58.

호경향을 중심으로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SP(감각적 인식형)형은 자유로운 것을 선호하며 행동을 수반하는 직업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 공연예술 뿐만 아니라 자연의 힘에 대항하여 사람의 힘을 투입시키는 일을 선호한다. 모델, 형사, 경찰, 구조대원 등 모두 다 순간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력과 활달함을 보이는 직업을 선호한다. SJ(감각적 판단형)형은 위계질서에 대한 신념과 요구를 지니고 있고 부모같이 책임감이 있다. 직업에 대한 선택은 단체의 마음에 이끌리며 표준절차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가르치고 설교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복구하는 일 즉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⁸⁸⁾

NT(직관적 사고형)형은 지성을 사랑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일 처리를 한다.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자기 비판적이다. 이 유형은 지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능력을 중시하며 자신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능력을 발휘한다. 복잡함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수학, 과학, 철학, 분야에 흥미가 높다. 지적 세계에 문혀 쉽게 소외될 수 있으며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NF(직관적 감정형)형은 자아실현을 갈망하며 진실된 자신이 되고자 한다. 각각의 관계 속에서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건을 드라마로 구성해 낼 수 있다. 정신의학자, 상담자, 성직자 같은 직업에 만족이 높다.⁸⁹⁾

나. MBTI와 진로

자신의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MBTI의 기능별 유형에 따른 직업 선호 경향과 직무만족은 다음과 같다.

(1) 기능별 유형에 따른 직업 선호 경향

기능별 유형의 직업에 대한 선호경향의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T는 실질적, 사실적이므로 경제, 법률, 외과, 회계, 생산, 기계나 재료의 조작, 등 구체적 사실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만족을 느낄

88) 김정택, 심혜숙, 임승환, *나의 모습, 나의 얼굴*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5), 38-39.

89) Ibid., 40-41.

가능성이 많다.

SF는 감각과 감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동정적이고 우호적이다. 이론상 이 유형은 구체적 상황에다 자기의 따뜻한 온정을 펼 수 있는 분야에서 성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판매, 친절한 서비스업, 교직(초등교사), 간호, 소아과 의사, 환자를 직접 돌보는 보건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NF는 따뜻한 온정과 헌신으로 가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으면서도 정열적이다. 자기들이 본 가능성과 또 이 가능성들이 가진 가치를 전달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펼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 상담, 집필, 연구 등의 분야에 만족을 느낄 가능성이 많다.

NT는 논리적이고 추구하는 가능성을 인간적이 요소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기술적, 과학적, 이론적, 관리직분야에의 가능성이다. 이 유형을 과학적 연구, 수학, 복잡한 재무, 또는 기술적 분야에서 만족을 느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2) MBTI와 직무만족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도전감, 수입정도, 직업이 갖는 사회적 위치, 가족들의 권유, 존경하는 선생님의 영향,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기회, 같이 일할 사람들에 대한 호감 등 다양한 이유를 고려하여 자신이 선택한 직장에서 직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직무에 대해 모두가 만족감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직업적 상황에서 MBTI는 개인의 선호유형과 직무의 성격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검토하여 선호유형과 직업과의 부조화를 가능한 줄임으로써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⁹⁰⁾ 선호유형과 직무의 부조화를 느낄 때 사람들은 피로해 하고 부적절한 느낌을 갖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덜 선호하는 과정을 사용함으로써 피곤감이 발생하고 노력에 비해 만족과 효율성이 적어져 의기소침해 진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선호하고 발달된 과정에 적합한 일을 하게 되면 효율성에서 더 좋은 결과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MBTI와 직무만족과 관련된 연구에서, 개개인이 어떤 분야에서 행복감과 보람을

90) B. Myers and H. McCaulley, *MBTI 개발과 활용*, 119.

느끼는지, 또는 불행감과 공허감을 느끼는지 퀴크(Quenk), 퀴크(Quenk)와 알버트(Albert), 맥켄리(McCaulley)는 작업환경에서 유형차이를 연구하였는데, 유의미한 관계가 제시되어 전문분야, 교육, 작업경력, 작업환경, 만족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⁹¹⁾

김정택, 심혜숙은 MBTI가 개인의 직업과 그 개인의 선호경향 사이에 뚜렷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SN선호도와 직업의 선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EI선호도는 특정직업 내에서도 적절한 업무분담을 선택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MBTI로 개인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유능감을 연구할 때 직업상 높은 만족감과 유능감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유형을 파악하여 그 직업에서의 성공적인 유형의 이론적 특성이 특정한 직업의 직무만족, 능력발휘와의 관계연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⁹²⁾

지금까지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 태도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하여 1절에서는 연구대상자인 대학생의 발달 특징과 문제 행동들로 음주와 흡연, 약물남용, 혼전임신, 자살, 비만과 거식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 논의하였다. 대학생은 종교·가치관·인생관·정치적 견해 및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사회적 인지능력이 발달되면서 자아개념의 발달과 혼란이 가중 될 수 있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2절에서는 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 가치관에 대한 용어 정의, 가치관의 분류, 정신분석학적, 학습이론적, 지각적 해석(장의 이론)에서 본 가치관 형성 이론적 접근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논의에서는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한국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고찰하였다. 청소년의 의식구조로 물질주의 성향, 이기적 개인주의 성향, 기성세대와의 갈등적 성향, 현재 지향적 성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였으며, 한국대학생과 일본대학생과 비교하여 가치관에 대한 비교 논의하였다. 3절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성숙 발달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으로 특성요인 이론, 욕구이론, 발달이론, 진로발달이론, 직업발달연구에 대해 고찰하고, 대학생 개인의 내적, 외적 진로정보에 대한 이해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의 현실문제로 입시위주의 진로지도, 부모중심의 결정,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왜곡된 직업의식,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91) B. Myers and H. McCaulley, *MBTI 개발과 활용*, 136.

92) Ibid., 119-125.

진로성숙을 위한 진로지도에 관한 내용으로는 직업적 역할과 자아인식, 일의 세계에 대한 인식, 일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습득,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 원만한 인간관계 습득, 일과 직업의 경제적 측면 이해, 교육과 일의 세계와의 관계 인식을 논의하였다. 효과적인 기독교 교양교육을 적용을 위하여 필자의 교과과정에 진로지도를 도울 수 있는 성격유형(MBTI)이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MBTI의 이해, MBTI와 진로, MBTI와 직무만족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과정에 이러한 타학문의 적용은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교육하는 기독교 교양과목을 통하여 대학생의 긍정적인 가치관과 진로성숙 태도를 높일 수 있는 조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독교 교양 교육 교과과정에 기독교 신앙이해와 더불어 가치관과 진로지도에 대한 교육 내용을 논의하겠다.

제 4 장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과정

혜천대학에서 필자가 교육하는 기독교 교양과목을 통하여 대학생의 긍정적인 가치관과 진로성숙 태도를 높일 수 있는 조력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기독교 교양 교육 교과과정에 기독교 신앙이해와 더불어 가치관과 진로지도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구성한 것을 전개 하고자 한다. 본 장의 1절에서는 혜천대학의 기독교 교양과목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할 것이며, 2절에서는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에 대한 기독교 교양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용된 교과과정을 기술할 것이다.

제 1 절 혜천대학의 기독교 교양교육

혜천대학은 기독교 복음 정신을 토대로 세워진 대학으로서 건학이념에 따른 기독교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기독교 교양교육을 소개하고, 교과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필자가 앞에서 논의한 기독교 교양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되고, 또한 기독교 교양교육의 효과와 가치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내용을 적용한 것을 전개하고자 한다.

1. 혜천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이념

혜천대학은 혜천 이병익에 의해 ‘경천(敬天), 위국(爲國), 애인(愛人)’이라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위에 설립되었으며, 2004년 현재 이사장 이용국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발전중이다. 이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 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지덕체의 균형된 개발을 도모하고 산업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 연구시켜 이론과 기술면에서 공히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한다'는 교육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학훈은 연학(研學), 노력(努力), 봉사(奉仕)이며, 교육 목표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참여를 위한 자질을 향상, 봉사정신이 투철한 전문직업인의 직업관을 확립, 전문분야의 이론을 탐구하고 기술의 습득으로 하고 있다.

2. 채플과 기독교 교양과목

혜천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약 4,500여명으로 채플과 기독교 교양과목을 이수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채플은 2년제 학과의 경우에 의무학기수가 4학기, 3년제 학과는 6학기이며 학점이수는 'pass'로 결정된다. 기독교 교양과목은 '기독교 이해, 성서의 세계, 기독교 윤리' 3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과목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학기당 학점 수는 1학점, 시간 수는 1시간으로 되어있으며 의무 학기 수는 총 3학기로 되어 있다.

혜천대학은 교목실장 1인과 2인의 교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플은 매주 목요일 4회로 나누어 각 학과의 학생이 참석하고 있으며, 기독교 교양 과목은 2인의 교목과 외래 강사(목사)들에 의해 교육되어지고 있다. 규정된 교재는 현재까지 없으며 담당과목의 교과과정은 교수에 따라 달리 진행되고 있다.

3. 혜천대학의 기독교 교양과목의 교과과정의 내용

혜천대학의 기독교 교양과목은 기독교 이해, 성서의 세계, 기독교 윤리 등 3과목이다. 기독교 이해는 본 연구자가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된 교육과목으로 본 장의 2절에 구체적인 교과과정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다음은 성서의 세계와 기독교 윤리의 교과과정 내용이다.

가. 성서의 세계

성서의 세계 과목은 본 연구에서 적용된 기독교 이해 외에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기독교 교양과목이다. 본 과목은 성서 각 권 내용을 탐구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성경 전체의 구원사적 흐름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성서의 현대적 의미를 알게 하며 성서를 생활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학습 목적을 갖고 있다.⁹³⁾ 성서의 세계의 교육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1주-교과목 진행 안내, 2주-성경의 문학과 구조, 3주-하나님과 세상 창조, 4주-인간 창조와 타락, 5주-죄와 율법, 6주-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 선택, 7주-이스라엘 왕국의 흥망, 9주-시가서, 10주-선지서, 11주, 12주-복음서, 13주-서신서, 14주-역사서, 예언서 등으로 교과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기독교 윤리

기독교 윤리 과목은 사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 즉, 낙태, 성, 청소년 문제, 문화변화, 노인복지, 인권, 노동, 빈부격차, 결혼 등에 관한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기독교적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한다.⁹⁴⁾ 본 과목으로 전술한 일반 윤리 문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방법으로는 강의와 조별발표와 토론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주-전체수업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2주-윤리, 도덕 및 논리의 관계에 대한 강의, 3주, 4주-주제토론, 5주에서 13주-조별발표 및 토론, 14주-정리 및 종합토론 등의 과정으로 교과 내용이 구성되어진다.

제 2 절 본 연구에서 적용된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과정

본 연구자가 실시하는 기독교 이해라는 과목명의 기독교 교양교육은 현대의 다양한 사상과 이론 속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 가치를 인식케 하려는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⁹⁵⁾ 기독교 신앙 이해와 더불어 혜천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93) 나경천 편, *혜천대학요람 2004* (대전: 혜천대학 기획처), 251.

94) Ibid.

95) Ibid.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으로 구성된 세 개의 틀인 기독교 정신, 가치관 교육, 진로지도 교육과정에 대해 전개하고자 한다.

1. 기독교 교양교육 교과과정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진로성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력을 하기 위해 본 교과과정은 기독교 정신, 가치관 교육, 진로지도 등 세 개의 틀로 구성하였다.

<표 3> 기독교 교양과목 교과과정

주	대주제	소주제	학습내용
1주	기독교 정신	오리엔테이션	교과목과 강의 진행 안내
2주		기독교 입문	세계관으로서의 기독교와 성경
3주		신론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4주		인간론	하나님의 형상, 죄인된 인간
5주		구원 및 기독교론	구원과 예수그리스도
6주	가치관 교육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에서의 역사와 종말
7주		기독교 문화관	기독교문화와 대중문화
8주		기독교 가정관	성, 결혼, 가정
9주		기독교 국가관	교회와 국가
10주		기독교 직업관	직업, 사회생활
11주	진로지도	자기탐색과 자기이해	MBTI의 이해, MBTI검사, MBTI와 진로
12주		직업관과 직업의식	바람직한 직업관과 직업의식
13주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이해 실습: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 20가지 탐색
14주		의사결정 기술	의사결정기술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2. 교과과정의 구체적 교육내용

본 연구에서의 기독교 교양교육의 구체적인 교과과정 내용으로는 기독교 정신교육, 가치관 교육, 진로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 기독교 정신 교육

기독교 정신 교육의 내용으로는 기독교 입문과 관련된 세계관으로서의 기독교와 성경, 신론, 인간론, 구원 및 기독교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기독교 입문

기독교 입문에 대한 내용으로 첫째는 기독교의 영원불변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편견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는 삶의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며, 넷째는 세계관으로서의 기독교, 그리고 다섯째는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신론에서는 사람들의 논쟁, 신 존재 증명 방법, 신 존재 증명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알의 중요성,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등의 내용으로 신론에 대한 교육이다.

(3) 하나님의 형상, 죄인된 인간

인간론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인간의 구조와 영혼의 기원, 인간의 존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는 죄를 짓는 인간, 죄의 무서운 결과, 죄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무모한 시도, 인류의 유일한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인생 최고의 축복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나. 가치관 교육

학생들의 가치관 수준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하여 가치관 교육을 위한 본 교과와 내용으로는 기독교적 관점에 입각한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문화관, 기독교 가정관, 기독교 국가관, 기독교 직업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기독교에서의 역사와 종말

역사관에서의 교육 내용으로는 다양한 역사관, 기독교 역사관, 세상 종말, 개인 종말로 나누어 구성하였는데, 간략한 내용 설명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역사관들에 관한 교육 내용에서는 진화론적 역사관, 운명론적 역사관, 계급투쟁적 역사관, 순환적 역사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독교 역사관에서의 역사는 반복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으로, 일회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는 직선적 역사관을 설명하기 위해 예정론을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인이 현재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현실에 적극적이며 충실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상 종말에는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성경적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2) 기독교에서의 문화

기독교 문화관을 교육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문화의 개념, 대중문화를 윤리 및 종교적 문제점, 문화 변혁의 관점에 따른 기독교 문화관에 대한 바른 이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기독교에서의 가정

기독교 가정관에서는 성(性)에 대한 성경적 이해, 기독교적인 결혼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한 내용이다. 또한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4) 기독교에서의 국가

기독교 국가관에서는 교회와 국가와 관계, 기독교 국가관의 바람직한 이해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과 국가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5) 기독교에서의 직업

기독교 직업관에서는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성경적 직업관에 대한 교육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람직한 직업의 요건, 기독교인의 직업 선택, 직업에서 만족을 얻기 위한 원리들이다.

다. 진로지도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양과목의 교과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진로지도에 대한 내용을 필자는 졸업 후에 다가오는 직업문제에 대한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태도인 진로 성숙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본 기독교 교양과목의 교과과정의 한 틀로 구성하였다. 진로지도에 대한 내용은 3장에서 소개한 진로지도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기탐색과 자기이해에 대한 조력

진로계획을 세울 때 우선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자신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자신의 적성과 흥미는 어떠한지, 자신의 다른 심리적 특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만 올바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자기탐색과 자기이해에 대한 조력을 위해 자신들의 흥미나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MBTI를 통해 자기탐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2)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의식

대학에서의 진로교육과 진로지도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의식은 어려서 이미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지만 잘못되었거나 왜곡된 인식은 대학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 즉 직업을 갖는 것을 생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생계의 수단으로서의 일의 의미도 매우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만으로 직업을 갖는다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일이 인간의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택해지지만, 일은 급여를 받는 일이든 아니든 간에 좀 더 광범위한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부가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즉 다른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개인의 존엄성과 자신감, 전반적인 인간문제 등과 같은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훌륭한 직업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직업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의식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일 자체를 목적이기보다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일을 생계를 벌기 위한 수단, 출세를 하기 위한 수단,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 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일이나 직업이 그 개인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쉽다. 왜냐하면 일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목적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수단에서는 별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을 통한 개인의 자아정체감 확립이나 자기충족, 또 자아실현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신이 흥미가 있어서 또 즐거워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체, 즉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 만족하고 또 여기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이 참여하는 일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게 된다. 이렇게 일 자체에서, 즉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일의 의미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의 만족은 물론 생산성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결과도 되는 것이다.

둘째, 직업 자체에 대한 편견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 특정 직업은 귀히 여기고 어떤 직업은 매우 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편견이 소위 대학의 인기학과나 사회의 인기직업을 창출해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은 무시한 채 소위 인기직종에 몰리다 보니 고용의 불균형상태가 발생한다. 우리가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소위 인기직업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직업이 다 제각기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직업이든 개인에게 적합한 것이라면 누구나 다 그 분야에서 성취감과 행복감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직업은 여성에게, 또 다른 직업은 남성에게만 적합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남성위주의 전통적 사회에서 형성된 성역할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가장 심각하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직업세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들의 교육기회 증대,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성에 대한 구별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이상과 같은 고정 관념을 벗고 학생들이 바람직한 직업관과 직업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기독교 직업관과 자신의 직업관에 대해 조별 토론을 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

대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는 자신이 종사할 직업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공학과에 대한 정보와 이해 없이 합격위주로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자기 전공과 관련된 직업세계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그나마도 매우 제한되고 왜곡된 정보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현대사회는 정보사회로서 직업탐색이야말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인 것이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직업세계의 변화가 급속한 때에는 직업정보야말로 성공적인 진로결정의 관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로 하여금 직업세계를 전체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자신에게 맞

는 전공과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정한 직종의 장래전망은 어떤지, 선택한 분야에 가능한 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로지도를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더 광범위한 직업세계를 인식하고, 각 직업과 관련된 발달단계, 성숙단계, 보상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교육시켜야 한다. 즉 직업세계의 다양성과 복합성, 진로의 사회적 목표, 기능, 요구와의 관련성, 다양한 진로준비와 관련된 특성들, 진로준비와 관련된 각 진로 발달단계, 개인의 진로와 생활양식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개인이 일의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아를 인식을 하고, 일의 세계를 이해해서 자신과 일의 세계를 연결짓는 진로정체의 확립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이상의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이해를 위해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 20가지를 탐색하고 그 직업에서 MBTI에 따른 자신의 성격유형과 연결시켜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직업 5가지를 선정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4) 의사결정 기술

자신에 대한 정보,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자신의 직업관과 가치관 등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적절히 활용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올바른 진로결정을 하기 어렵다. 진로를 결정하는 일은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이다. 진로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생활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다. 즉 능력 발휘의 기회, 거주지, 친구유형,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 간의 관계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진로선택은 개인이 내려야 할 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매우 불합리한 과정을 거쳐서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즉 자신에 대한 이해 없이, 또 일의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편견에 의해서,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친구

의 권유에 의해서, 또 다른 외적인 욕구를 추구하다가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내린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을 갖게 되고 아울러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기술을 증진시키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이해함으로 진로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성숙시키기 위해 자신의 직업관에 따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업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특히 인간관계를 훈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혜천대학에서 교육하는 기독교 교양과목을 통하여 대학생의 긍정적인 가치관과 진로성숙 태도를 높일 수 있는 조력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기독교 교양 교육 교과과정에 기독교 신앙이해와 더불어 가치관과 진로지도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구성한 것을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혜천대학의 기독교 교양교육에서는 혜천 이병익에 의해 '경천, 위국, 애인' 이라는 혜천대학의 건학이념과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 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이념, 채플과 기독교 교양과목에 대한 내용, 혜천대학의 기독교 교양과목의 교과과정인 성서의 세계, 기독교 윤리 과목의 교과과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독교 교양교육 프로그램인 기독교 이해 과목의 교과과정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였다.

본 연구자가 담당하고 있는 기독교 이해라는 과목명의 기독교 교양교육은 현대의 다양한 사상과 이론 속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 가치를 인식케 하려는 목적으로 개설되어 기독교 신앙 이해와 더불어 혜천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기독교 정신, 가치관 교육, 진로지도 등 세 개의 틀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독교 정신교육의 구성 내용은 기독교 입문,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죄인된 인간, 구원과 예수그리스도가 포함되었다. 가치관 교육 내용으로는 기독교에서의 역사와 종말, 기독교에서의 문화, 기독교에서의 가정, 기독교에서의 국가, 기독교에서의 직업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여 전개하였다. 진로에 대한 성숙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진로지도 내용으로는 자기탐색과 자기이해에 대한

조력에 대한 내용,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의식,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 의사결정 기술에 대한 요점 내용을 기술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의 교과과정으로 구성된 기독교 이해 과목을 수강한 혜천대학 학생들의 기독교 교양교육 실시 전후의 연구결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여 논의하겠다.

제 5 장

기독교 교양교육 실시 전후의 연구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필자가 기독교 정신, 가치관 교육, 진로지도 등 세 개의 틀로 구성하여 개발한 기독교 교양교육이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1절에서는 연구방법과 연구의 제한점을 기술하고, 2절에서는 대상자의 특성과 연구대상자의 가치관 및 진로성숙도를 파악할 것이다. 3절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검증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4절에서는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는 기독교대학생간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를 분석할 것이다.

제 1 절 연구방법 및 제한점

1. 연구방법

본 논문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가치관의 혼미 상태와 대학을 졸업한 후의 진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효과적인 기독교 교양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진로태도 성숙을 위해 실시되어지는 대학의 기독교 교양교육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혜천대학에서 기독교 교양과목(기독교 이해)을 수강한 1학년 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건전한 가치관과 진로태도 성숙을 목적으로 한 14주의 교과과정을 적용하였다. 설문작업은 교육 전, 14주 후, 그리고 교육 효과의 지속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6주 후에 설문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처리에서는 학생 400여 명 중 설문지 대답이 미비한 48명을 제외시키고 352명을

분석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는 기독교 교양교육을 실시하기 전후의 가치관과 진로태도 성숙을 사전 사후 비교하는 유사실험 연구이며 자료 처리는 SPSS Win 10.0 통계프로그램⁹⁶⁾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은 첫째,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퍼센트) 분석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가치관과 진로성숙의 차이는 각 집단의 평균 득점차이를 구하여 티검증⁹⁷⁾ 일원변량분석⁹⁸⁾을 통해 유의성 유무를 검증하였다. 셋째, 전체 대상자의 전·후 가치관과 진로성숙의 차이는 사전집단과 사후집단으로 나눈 후 평균 득점차이를 구하여 대응표본 티검증⁹⁹⁾을 통해 유의성 유무를 검증하였다. 교육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한 추후 검증을 하였다. 넷째,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비기독교대학생, 기독교대학생, 정상적인 신앙고백을 하는 대학생간의 가치관과 진로성숙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유의성 유무를 검증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샤페 검정(Scheffe test)¹⁰⁰⁾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가치관과 진로성숙도에 대한 시점별 변화를 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자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대전지역 한 개의 대학에서 1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한국의 모든 지역, 모든 대학생, 모든 학

96) 오택섭,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 (서울: 나남출판사, 1998), 34.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는 각종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많은 유형의 자료들을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분석처리 할 수 있는 광범위한 패키지를 말한다.

97) Ibid., 179. t-test는 조사 대상인 두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는 분석처리 방법으로 평균의 수치로 분석을 한다.

98) Ibid., 197. t-test는 두 표본 평균간의 차이를 기초로 하여 두 집단의 평균간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데 비해, 변량분석은 두 개 이상의 모집단 평균간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통계기법이다. 일원이라는 것은 한 개의 독립변인을 의미한다.

99) 정충영, 최이규, *SPSS 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1997), 276. 대응 표본 티검정(Paired-samples t-test)은 한 표본에서 두 변수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통계기법이다.

100) Ibid., 296. Scheffe test는 평균의 쌍 비교에 대한 부수적인 것이며 다른 다중 비교 검증보다 유의도에 있어서 평균간 더 큰 차이를 필요로 한다.

년의 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대학생이지만 전문대학 학생은 4년제 대학 학생들과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문대학 모든 학년과 4년제 대학 모든 학년의 학생들의 연구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한다.

교과과정 내용에서는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 조력과 진로 성숙 태도의 발달을 위하여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맞게 전개되었으나 가치관 형성은 교육적인 측면만으로 절대적인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진로 성숙 발달 측면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검사지를 적용할 수 있고, 교육 내용도 달리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가 모든 학생들의 가치관과 진로태도 성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를 검사하는 척도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표준화된 척도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나 검사지에 응답하는 학생들의 응답이 오차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한계점으로 본 결과 추후에 본 연구와 비교할 수 있는 비교연구와 전문대학 모든 학년과 4년제 대학 모든 학년의 대상으로 적용한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 발달을 위한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교과과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제 2 절 대상자의 특성과 가치관 및 진로성숙도

1. 대상자의 특성

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나이 및 종교를 변수로 넣어 빈도와 퍼센트로 분석하여 분포를 파악하였으며, 학생들의 종교적 특성 변수로는 출석교회 교파, 신급, 교회 출석 경력을 포함시켜 분포를 파악하였다. 종교변수에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나누어 비기독교인에는 무교, 불교, 기타 종교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수준을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종말론) 등 7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교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352)

변수	빈도(명)	구성비율(퍼센트)	
성별	남학생	182	51.7
	여학생	170	48.3
나이	만18세	81	23.0
	만19세	177	50.3
	만20세	25	7.1
	만21세	19	5.4
	만23세	25	7.1
	만24세	25	7.1
종교	기독교	164	46.6
	비기독교*	188	53.4
합계	352	100.0	

* 비기독교¹⁰¹⁾

본 연구자가 실시하는 기독교 교양교육(기독교이해)을 받은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51.7퍼센트, 여학생이 48.3퍼센트로 나타나 남학생이 다소 많았으나 남·여학생의 분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나이는 만18세가 23.0퍼센트, 만19세가 50.3퍼센트, 만20세가 7.1퍼센트, 만21세가 5.4퍼센트, 만22세가 7.1퍼센트, 만24세가 7.1퍼센트의 분포를 보였다. 만18세, 19세가 73.3퍼센트를 나타낸 것은 본 기독교 교양과목의 대상이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이며, 나이가 많은 학생들은 군복무 후의 복학생과 직장 생활 후 입학한 학생들의 분포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종교는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6.6퍼센트, 비기독교인이 53.4퍼센트로 나타났다. 혜천대학의 전체 비기독교인의 분포가 대략 65-70퍼센트에 비해 본 연구 대상자의 비기독교인 분포는 적은 분포이다. 이상의 분포에서 비기독교대학생에 대한 선교 필요성이 요구된다.

101) 비기독교 학생의 분포는 전체 188명 중 무교가 100명(28.4퍼센트), 불교가 44명(12.5퍼센트), 그 외 종교인이 44명(12.5퍼센트)이었다.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학생에 대한 종교 특성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기독교대학생의 특성(N=164명)

변수		빈도(명)	구성비율(퍼센트)
교파	장로교	83	50.6
	감리교	44	26.8
	성결교	15	9.1
	침례교	13	7.8
	순복음	7	4.3
	구세군	2	1.2
신급	학습	20	13.8
	유아세례	10	6.1
	세례	81	49.3
	입교	9	6.0
	없음	44	26.8
교회출석 경력	1년 미만	22	13.3
	1년-10년	83	50.6
	11년-15년	37	22.6
	15년 이상	22	13.3
합계		164	100.0

기독교대학생의 출석 교회 교파별로 분석해 보면 장로교인이 50.6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감리교인이 26.8퍼센트, 성결교인이 9.1퍼센트, 침례교인이 7.8퍼센트, 순복음 교인이 4.3퍼센트, 구세군교인이 1.2퍼센트로 나타났다. 장로교인이 다른 교파에 비해 월등히 많은 분포를 보인 것은 합동과 통합 모두가 장로교에 소속되어 높은 비율을 나타내 것으로 추측된다.

기독교대학생 중 세례교인이 49.3퍼센트, 학습교인이 13.8퍼센트, 유아세례교인이 6.1퍼센트, 입교인이 6.0퍼센트로 나타났다. 세례교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학생이 26.8퍼센트로 나타났다.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학생 중 상당수가 신급이 없음을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여기

저기에 다니는 학생, 최근에 기독교인이 된 학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기독교학생들의 교회출석 경력에서는 1년-10년이 50.6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1년-15년이 22.6퍼센트, 1년 미만과 15년 이상이 각각 13.3퍼센트의 비율로 나타났다. 11년 이상 출석이 35.9퍼센트로 나타나 대상자의 1/3 이상이 초등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교회에 출석하였으므로 세례교인이 많은 분포를 보인 것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나.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수준 점검

일반적으로 교의 신학에서 다루는 영역은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종말론) 등 7대 영역으로 대별화 되는데 이러한 교의신학에 입각하여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수준을 점검하는 문항들을 구성하여 질문해 본 결과 응답은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수준 점검(N=164)

항목		예 명(퍼센트)	아니오 명(퍼센트)
성경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류가 없다.	158(96.3)	6(3.7)
신 관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권능, 신성이 동등하시다.	121(73.8)	43(26.2)
인간관	인간은 아담 범죄 이후 예외 없이 타락한 존재다.	124(75.6)	40(24.4)
기독교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시다.	160(97.6)	4(2.4)
구원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121(73.8)	43(26.2)
교회관	교회는 예배, 교육, 전도, 교제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161(98.2)	3(1.8)
내세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심판 그리고 천국을 믿는다.	120(73.2)	44(26.8)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무오하다는 성경관에 대해서는 96.3퍼센트가 긍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바람직한 신앙수준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성부 성자 성령 3위는 영광·권능·신성이 동등하시다는 신관에 있어서는 73.8퍼센트가, 인간은 아담 범죄 이후 예외 없이 타락한 존재라는 인간관에 대해서는 75.6퍼센트가, 예수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기독교관에 대해서는 97.6퍼센트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73.8퍼센트가, 교회는 예배·교육·전도·교제 등을 이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98.2퍼센트가, 예수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심판 및 내세를 신앙하는 내세관에 있어서는 73.2퍼센트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성경관에서는 3.7퍼센트, 기독교관에서 2.6퍼센트, 교회관에서 1.8퍼센트의 학생들이 신앙의 확신이 부족하였다. 신관에서는 26.2퍼센트, 인간관에서 24.4퍼센트, 구원관에서 26.2퍼센트, 내세관에서 26.8퍼센트의 학생들이 신앙의 확신이 없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교회에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70퍼센트 이상이 긍정하는 답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항목에 걸쳐 '예'라고 응답한 기독교대학생은 전체 164명 중 120명으로 73.1퍼센트로 과반수 이상의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생의 상당수는 신앙수준이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교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변수인 성별과 나이 및 종교에 따른 가치관 차이와 종교적 특성 변수인 소속 교회 교파와 자신의 신급 및 교회 출석 경력에 따른 가치관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특성 변수별 가치관 평균득점을 구한 후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이 세 집단 이상일 경우에는 특히 어떤 집단에서 가치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으로 사페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독교대학생의 신앙 수준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변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학생 124.11(10.66) 여학생 126.06(10.76)	-1.494	.136
나이	만18세 123.54(9.05) 만19세 123.35(11.46) 만20세 123.54(10.36) 만21세 125.12(9.08) 만23세 125.24(8.25) 만24세 126.66(10.44)	2.283	.146
종교	기독교 134.64(1.26) 비기독교 116.53(7.67)	30.228	.000
전체	125.17(10.7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티검증(t-test)과 일원변량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가치관 평균 점수가 여학생 126.06점, 남학생 124.11점으로 여학생이 높은 가치관 점수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나이가 많을수록 가치관 평균점수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군복무를 완수한 학생들이나 직장생활 경험 후에 진학한 학생들이 나이가 많은 집단에 속하므로 다른 사회적 경험이 그들의 가치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상자의 종교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에서는 기독교대학생의 경우에는 가치관 평균 점수가 134.64점, 비기독교대학생의 경우에는 116.53점으로 나타나 0.01퍼센트의 오차확률을 가지고 기독교대학생이 비기독교대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30.228, p=.000) 기독교대학생이 비기독교대학생에 비해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높은 이유는 기독교의 신앙교육이 개인의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교회교육과 신앙이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나. 대상자의 종교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기독교대학생의 소속 교회의 교파와 개인의 신급 및 교회 출석 경력 등의 종교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대상자의 종교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변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p	Scheffe
교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구세군	135.00(5.32) 134.21(4.37) 134.82(3.33) 134.21(4.62) 133.67(3.32) 133.55(4.43)	2.263	.158	
신급 학습 유아세례 세례 입교 없음	136.62(5.29) 134.81(.21) 138.82(.34) 135.97(5.67) 133.89(3.54)	956.742	.000	*세례>신급없음, 유아세례 *학습>신급없음
교회출석 경력 1년 미만 1년-10년 11년-15년 15년 이상	133.83(.24) 133.94(1.23) 134.88(2.13) 134.98(3.12)	2.332	.164	
전체	134.64(1.26)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속 교회의 교파에 따라서는 장로교 135.00점, 감리교 134.21점, 성결교 134.82점, 침례교 134.21점, 순복음교회 133.67점, 구세군교회 133.55점으로 가치관 평균이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장로교인인 학생들의 가치관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으나 다른 교파에 소속된 학생들과 비교해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따라서 출석교회 소속 교파 변수는 개인의 가치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대학생의 신급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0.01퍼센트의 오차확률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956.742, p=.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례교인이 138.82점으로 가장 높은 가치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학습교인이 136.62점, 입교인이 135.97점, 유아세례교인이 134.81점, 해당 사항이 없는 교인이 133.89점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신급에 따른 가치관은 세례를 받은 기독교대학생이 아무런 신급을 받지 않은 기독교대학생보다 가치관의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어떠한 집단의 학생들이 특히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후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세례를 받은 학생들이 아무런 신급을 받지 않은 기독교대학생과 유아세례를 받은 학생들보다 가치관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학습을 받은 학생들도 아무런 신급을 받지 않은 기독교대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가치관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아무런 신급을 받지 않은 기독교대학생에 비하여 세례를 받은 기독교대학생은 개인의 신앙수준이 더욱 확고하여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신앙유업에 따른 유아세례를 받은 기독교대학생의 경우에 자신의 신앙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에 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교회출석 경력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는 1년 미만인 133.83점, 1-10년이 133.94점, 11년-15년에서 134.88점, 15년 이상이 134.98점으로 출석 경력이 적은 학생보다 출석 경력이 많은 학생이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한 기독교학생이 개인의 가치관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였어도 개인의 확고한 신앙이 없는 출석 기간 자체는 개인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삶과 신앙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적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를 들 수 있다.

다. 기독교대학생의 신앙 수준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기독교대학생의 신앙 수준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신앙수준은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과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

대학생으로 나누었으며,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은 성경관, 신관, 인간관, 기독교관, 구원관, 교회관, 내세관 등 7개의 항목에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한 기독교대학생을 말하며 7개의 항목 중 어느 한 개라도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은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을 나타낸다.

<표 9> 기독교대학생의 신앙 수준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변수	집단	명	평균(표준편차)	t	p
가치관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120	135.69(.46)	-3.278	.001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	44	132.32(1.61)		

<표 9>는 기독교대학생 164명 중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은 120명,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은 4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의 가치관 평균 점수는 135.69점,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의 가치관 평균 점수는 132.32점으로 1퍼센트의 오차확률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3.278$, $p=.001$)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의 가치관 수준이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의 가치관 수준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기독교 신앙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보다 확립되어 개인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종교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

일반적 특성 변수인 학생들의 성별, 나이, 종교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어떤 집단에서 더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은지 알아보았으며, 종교적 특성 변수인 교파, 개인의 신급, 교회출석 경력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또한 기독교대학생의 신앙 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를 비교하였다.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각 집단의 평균 득점을 구한 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3 집단이상을 가지고 있는 변수는 사후 검증으로 사뮈에 검증으로 분석하였으며,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수에 따른 유의성 검증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였다. 진로성숙도는 결정성, 타협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성의 5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¹⁰²⁾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변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p	scheffe	
성별	남학생 여학생	112.43(6.25) 109.96(5.55)	3.913	.000	
나이	만18세 만19세 만20세 만21세 만23세 만24세	106.62(1.50) 107.18(5.35) 108.13(4.29) 108.14(3.26) 119.00(4.22) 119.04(4.34)	169.210	.000	*만24세> 만18세,19세 *만23세> 만18세,19세
종교	기독교 비기독교	113.43(3.18) 108.52(6.12)	4.103	.000	
전체		111.24(6.0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서는 진로성숙도 평균 점수가 여학생 109.96점, 남학생 112.43점으로 남학생이 높은 진로성숙도 점수를 나타내어 0.01퍼센트의 오차확률을 가지고 진로성숙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3.913$, $p=.000$). 즉 여학생에 비해 남

102) 진로성숙도의 척도의 문항에서 결정성은 1, 2, 11, 12, 21, 22, 30, 31, 39, 40번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타협성은 9, 10, 19, 20, 29, 38, 47번 문항, 관여성은 3, 4, 13, 14, 23, 24, 32, 33, 41, 42번 문항, 독립성은 5, 6, 15, 25, 26, 34, 35, 43, 44번 문항, 성향성은 7, 8, 17, 18, 27, 28, 36, 37, 45, 46번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여성은 가정주부, 남성은 직업생활을 하는 당위성을 교육받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전통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며 준비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추측되어진다. 그러나 김현옥의 연구결과¹⁰³⁾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현실적이며 직업에 대한 계획이나 관심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로성숙도의 성별간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갈등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좀 더 세분화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학생들의 나이에 따라서도 진로성숙도가 0.01퍼센트의 오차확률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69.210$, $p=.000$) 진로성숙도 평균 점수는 만18세가 106.62점, 만19세가 107.18점, 만20세가 108.13점, 만21세가 108.14점, 만22세가 119.00점, 만23세가 119.04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진로성숙도 점수를 보였다. 특히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이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샤페 검정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만23세의 진로성숙도와 만18세, 19세의 진로성숙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만22세 집단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도 만18세, 19세의 진로성숙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18세와 19세인 대학생에 비해 군대를 제대한 복학생이나 다양한 이유로 늦은 학업을 시작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동기부여를 가지고 학업을 시작한 학생들이 많은 나이 집단에 속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들의 종교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에서는 기독교대학생의 경우에는 진로성숙도 평균 점수가 113.43점, 비기독교대학생의 경우에는 108.52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4.103$, $p=.000$). 이러한 결과에서 기독교대학생이 비기독교대학생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기독교대학생은 교회의 신앙교육을 통한 직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관심이 많아 진로준비행동을 신앙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더 빠른 진로준비행동을 한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103) 김현옥, "청소년의 진로성숙의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대학원, 1989), 80-90.

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하위 영역별 비교

앞서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변수에 따른 진로성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진로성숙도의 5개의 하위영역별로 비교분석을 하여 차이를 살펴보았다.

(1) 진로성숙도의 성별 비교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티검증(t-test)을 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하위영역별 차이

진로성숙도	성별	남(182명)		여(170명)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결정성		25.65	2.79	25.68	2.72	.404	.125
타협성		21.27	1.50	20.51	1.30	1.492	.032
관여성		19.01	2.75	18.18	2.69	1.532	.021
독립성		26.39	1.95	25.51	1.28	2.459	.005
성향성		20.08	3.20	20.05	3.16	.412	.111
계		112.43	6.25	109.96	5.55	3.913	.000

먼저 전체적으로 남자대학생의 평균은 112.43점이며 여자 대학생의 평균은 109.96점으로서 진로성숙도 점수의 성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성숙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타협성, 관여성, 독립성에서는 성별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자 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진로 선택 시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타협성, 진로선택 과정에서의 능동적 참여의 정도를 의미하는 관여성,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독립성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태도를 나타냈다. 진로성숙도의 하위 영역별 차이에 따른 변인 규명은 계속적이고 세부적인 반복연구를 필요로 한다.

(2) 진로성숙도의 연령별 비교

나이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대상자의 나이에 따른 진로성숙도 하위영역별 차이

나이	만18세 (81명) 평균 (표준편차)	만19세 (177명) 평균 (표준편차)	만20세 (25명) 평균 (표준편차)	만21세 (19명) 평균 (표준편차)	만23세 (25명) 평균 (표준편차)	만24세 (25명) 평균 (표준편차)	F	p
결정성	25.09 (1.84)	24.58 (2.61)	24.39 (1.32)	24.38 (2.32)	27.14 (1.23)	27.15 (2.01)	19.235	.000
타협성	20.71 (.55)	20.21 (1.32)	21.01 (2.01)	21.62 (1.21)	22.18 (2.15)	22.20 (1.25)	18.232	.000
관여성	18.45 (1.81)	17.94 (2.57)	18.75 (1.23)	18.70 (1.33)	20.75 (2.65)	20.76 (2.33)	25.436	.000
독립성	25.83 (1.02)	25.32 (1.77)	25.13 (2.12)	25.16 (1.11)	27.94 (1.78)	27.90 (1.66)	27.789	.000
성향성	19.52 (2.25)	19.01 (3.02)	18.82 (1.25)	18.85 (3.12)	20.99 (2.21)	21.03 (1.98)	30.134	.000
계	109.62 (1.50)	107.18 (5.35)	108.13 (4.29)	108.14 (3.26)	119.00 (4.22)	119.04 (4.34)	169.21 0	.000

진로성숙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결정성, 타협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성 모두에서 대학생의 연령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의 나이에 따라 결정성이 0.01퍼센트의 오차확률을 가지고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만23세, 24세 집단의 대학생이 만18세, 19세 집단의 대학생보다 결정성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 즉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하는 결정성이 군복무 후 복학한 복학생과 늦게 학업을 시작한 나이 많은 학생들에게서 자신의 진로 방향에 대한 확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나이에 따른 진로성숙도 하위 영역인 타협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성에 있어 모두 0.01퍼센트의 오차확률을 가지고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만18세, 19세의 정규적으로 입학한 학생보다 만23세, 24세의 복학생과 만기

입학한 학생들이 진로 선택 시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태도를 비롯한 진로선택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태도,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준비 태도에서 높은 성숙을 나타냈다.

(3) 진로성숙도의 종교별 비교

종교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티검증을 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대상자의 종교에 따른 진로성숙도 하위영역별 차이

진로성숙도	종교	기독교(164명)		비기독교(188명)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결정성		25.67	2.49	24.28	1.65	2.232	.003
타협성		22.25	1.64	20.58	1.19	1.433	.012
관여성		19.09	1.65	18.11	2.29	2.332	.004
독립성		26.33	1.33	25.55	1.45	2.459	.002
성향성		20.06	3.17	20.01	2.16	.402	.101
계		113.43	3.18	108.52	6.12	4.013	.000

전체적으로 기독교대학생의 평균은 113.43점이며 비기독교대학생의 평균은 108.52점으로 진로성숙도 점수의 종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성숙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결정성, 타협성, 관여성, 독립성에서는 종교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독교대학생이 비기독교대학생보다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하는 결정성, 진로 선택 시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타협성, 진로선택 과정에서의 능동적 참여의 정도를 의미하는 관여성,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독립성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신앙교육이 개인의 바람직한 가치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기대할 수 있다.

다. 대상자의 종교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변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p
교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구세군	111.53(.50) 110.80(2.37) 111.62(1.33) 110.71(3.62) 111.17(2.32) 111.10(.43)	1.263	.364
신급 학습 유아세례 세례 입교 없음	111.12(5.29) 111.64(.21) 110.92(.34) 111.97(5.67) 111.19(3.54)	2.042	.213
교회출석 경력 1년 미만 1년-10년 11년-15년 15년 이상	111.14(.24) 110.92(1.21) 111.29(2.23) 111.21(1.89)	.242	.897
전체	111.13(3.18)		

기독교대학생의 종교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교파에 따라서 장로교 111.53점, 감리교 110.80점, 성결교 111.62점, 침례교 110.71점, 순복음교회 111.17점, 구세군교회 111.10점으로 평균의 결과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독교대학생의 개인 신급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습교인이 111.12점, 유아세례교인이 111.64점, 세례교인이 110.92점, 입교인이 111.97점, 해당사항이 없는 교인이 111.19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회출석 경력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는 1년 미만인 111.14점, 1년-10년이 110.92점, 11년-15년이 111.29점, 15년 이상이 111.2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출석교회 소속 교파, 개인의 신급, 교회출석 경력은 학생의 직업과 관련된 진로성숙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기독교대학생의 신앙 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기독교대학생의 신앙 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기독교대학생의 신앙 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변수	집단	명	평균(표준편차)	t	p
진로성숙도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 대학생	120	116.75(1.24)	-8.753	.000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는 기독교 대학생	44	110.12(.48)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의 진로성숙도 평균 점수는 116.75점,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의 진로성숙도 평균 점수는 110.12점으로 0.01퍼센트의 오차확률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8.753$, $p=.000$).

이상의 결과에서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의 진로성숙 수준이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의 진로성숙 수준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알아본 종교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에서 학생들의 출석교회 교파, 개인의 신급, 교회출석 경력과는 진로성숙도는 무관하였다.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고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은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보다 높은 진로성숙 수준에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 직업관에 대한 신앙교육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하위 영역별 비교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 하위영역인 결정성, 타협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하위 영역별 비교

진로성숙도 \ 신앙수준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120명)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는 기독교대학생(44명)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결정성	25.67	2.49	24.28	1.65	2.232	.003
타협성	22.25	1.64	20.58	1.19	1.433	.012
관여성	19.09	1.65	18.11	2.29	2.332	.004
독립성	26.33	1.33	25.55	1.45	2.459	.002
성향성	20.06	3.17	20.01	2.16	.402	.101
계	116.75	1.24	110.12	.48	-8.753	.000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수준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하위 영역별 비교에서 성향성을 제외한 결정성, 타협성, 관여성, 독립성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정성에서는 1퍼센트의 오차확률을 가지고 정상적인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이 정상적인 신앙고백을 하지 않는 기독교대학생보다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었다.

타협성에서는 정상적인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과 정상적인 신앙고백을 하지 않는 기독교대학생은 5퍼센트의 오차확률을 가지고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정상적인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이 진로 선택 시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관여성과 독립성에서는 1퍼센트의 오차확률을 가지고 정상적인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이 정상적인 신앙고백을 하지 않는 기독교대학생보다 진로선택 과정에서의 능동적 참여 태도와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태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시라고 믿고 있는 기독교인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준비하는 삶에 대한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해준다.

제 3 절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 수준과 상관관계

1.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 수준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문제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들의 정체성이 혼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의 가치관 수준과 진로성숙도 수준을 고찰하는 것은 대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기독교 교양교육(기독교이해)을 받는 대상자는 해천대학의 1학년 학생으로서 대학생의 가치관 수준과 진로성숙도 수준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 대학생의 가치관 수준

본 연구 대상자인 해천대학 1학년의 가치관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대상자의 가치관 수준(N=352)

가치관	상관계수	유의도
진로성숙		
결정성	r=.623	p=.000
타협성	r=.532	p=.000
관여성	r=.636	p=.000
독립성	r=.627	p=.000
성향성	r=.548	p=.000
진로성숙도 합계	r=.630	p=.000

학생들의 전체 가치관은 득점범위 0-172점에서 평균 125.17점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2.77점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가치관은 비교적 70점이 넘는 수준의 결과이다. 이후에 타 학년 학생과 4년제 대학생에게까지 확대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나. 대학생의 진로성숙 수준

대상자의 진로성숙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대상자의 진로성숙도 수준(N=352)

변수	평균	표준편차
가치관	125.17	10.76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는 득점범위 47-188점에서 평균 111.24점으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으로는 59.17점으로 중간 이상의 진로성숙도 수준에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진로 성숙도 수준이 낮은 것은 한국 현실에서 입시위주의 진로지도, 부모 중심의 결정,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왜곡된 직업의식,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최근에 대학에서의 진로지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로지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서의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타 학년, 타 대학의 대학생들에게 확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대학생이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일반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 대상자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상관관계의 정도는 상관계수(r)로 분석할 것이며, 두 변수간에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유의성으로 검증할 것이다.

대상자의 가치관 수준과 진로성숙도 수준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대상자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와의 상관관계(N=352)

변수	평균	표준편차
진로성숙도	111.24	6.04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가치관과 진로성숙도 하위 영역인 결정성($r=.623, p=.000$), 타협성($r=.532, p=.000$), 관여성($r=.636, p=.000$), 독립성($r=.627, p=.000$), 성향성($r=.548, p=.000$)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5개의 하위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진로성숙도의 상관계수는 .630으로 상당히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0.01퍼센트의 오차확률을 가지고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다.

이상의 결과는 대학생의 가치관 수준이 긍정으로 높으면 진로성숙도 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추구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신념이 긍정적인 대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태도도 성숙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가치관 확립을 위한 노력은 교육의 목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제 4 절 대상자의 전후 가치관과 진로성숙도 비교와 추후검증

1.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가치관 비교와 추후검증

대학생의 긍정적인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교육한 기독교 교양 과목인 기독교 이해의 교과과정에서 기독교를 소개하여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알게 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기독교 가치관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기독교 교양교육을 실시 한 후 학생들의 가치관 수준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가치관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본 교육을 통하여 가치관 수준이 높아졌다면 높아진 가치관의 지속성을 보기 위하여 추후검증으로 분석하였다.

가.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가치관 비교

대상자의 기독교 교양교육 전 가치관과 기독교 교양교육 후 가치관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티검증으로 검증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가치관 비교(N=352)

구분	기독교 교양교육 전 평균(표준편차)	기독교 교양교육 후 평균(표준편차)	t	p
가치관	125.17(10.76)	139.11(7.80)	-33.281	.000

기독교 교양교육 전 가치관의 평균 점수 125.17(10.76)점에서 기독교 교양교육 후 가치관의 평균 점수 139.11(7.80)점으로 증가되어 0.01퍼센트의 오차확률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33.281$, $p=.000$). 즉, 본 연구에서 기독교 교양교육 교육을 받은 대학생은 가치관의 수준이 교육 전보다 높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기독교 가치관의 교과내용을 적용한 기독교 교양교육이 대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문화관, 기독교 국가관, 기독교 가정관, 기독교 직업관에 대해 교육받고 자신이 추구하며 이루고자하는 핵심적인 신념에 적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나. 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추후 검증

앞에서 기독교 교양교육이 학생들의 가치관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았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독교 교양교

육 전 검사, 교육 후 검사 1(14주 후), 교육 후 검사 2(26주 후) 등 세 번의 가치관 설문 조사를 실시 한 후에 비교하였다.

대학생의 가치관에 변화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21>와 같다.

<표 21> 대학생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추후 검증

변수 \ 시기	기독교 교양교육 전	기독교 교양교육 후 (14주 후)	기독교 교양교육 후 (26주 후)
가치관	125.17(10.76)	139.11(7.80)	139.94(8.23)

대학생의 가치관에 변화를 살펴보면 26주 후의 대상자의 평균은 139.94점으로 14주 후와 비교하여 가치관 수준이 감소하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는 아니지만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의 기독교 교양교육 교과과정을 적용한 후 변화된 가치관 수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독교 교양과목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일 학교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일반화할 필요성이 있다.

2.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진로성숙도 비교와 추후검증

가치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학생들의 진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지도 내용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기독교 교양교육을 실시한 후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을 높이는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기독교 교양교육 전과 후의 진로성숙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추후검증을 통하여 진로성숙도 수준의 지속성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가.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진로성숙도 비교

대학생의 기독교 교양교육 전 진로성숙도와 기독교 교양교육 후 진로성숙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티검정으로 검증한 결과는 <표 22>과 같다.

<표 22>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진로성숙도 비교(N=352)

구분	기독교 교양교육 전 평균(표준편차)	기독교 교양교육 후 평균(표준편차)	t	p
진로성숙도	111.24(6.04)	136.93(8.84)	-33.281	.000

기독교 교양교육 전 진로성숙도의 평균 점수 111.24(6.04)점에서 기독교 교양교육 후 진로성숙도의 평균 점수 136.93(8.84)점으로 증가되어 0.01퍼센트의 오차확률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43.076$, $p=.000$). 즉, 본 연구에서 기독교 교양교육 교과과정을 적용한 교육을 받은 대학생은 진로성숙의 수준이 교육 전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에서 기독교 교양교육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교과과정으로 구성된 진로지도의 내용에 자기탐색과 자기이해에 대한 조력을 위하여 MBTI를 실시하여 자신의 성격유형과 선호하는 직업, 직무만족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의식에 대한 내용,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 의사결정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성숙한 태도에 효과적으로 작용되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추후 검증

앞서 기독교 교양교육이 학생들의 진로성숙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진로성숙의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26주 후에 다시 진로성숙도 설문 조사를 하여 비교하였다.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의 변화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변화에 대한 추후 검증

변수 \ 시기	기독교 교양교육 전	기독교 교양교육 후 (14주 후)	기독교 교양교육 후 (26주 후)
진로성숙도	111.24(6.04)	136.93(8.86)	137.42(7.34)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26주 후의 대상자의 평균은 137.42점으로 증가된 진로성숙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의 기독교 교양교육 교과과정을 적용한 후 변화된 진로성숙 수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을 지지해 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긍정적 진로성숙 태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독교 교양과목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로지도 교육은 대학생 개인이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제 5 절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간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 비교

1.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간의 가치관 비교

기독교 교양교육 후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대상자를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으로 세분화시켜 각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가치관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각 집단의 교육 전, 14주 후, 26주 후에 조사한 가치관 변화를 분석하였다.

가. 기독교 교양교육 전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간의 가치관 비교

본 연구에서 기독교 교양교육 교과과정을 적용하기 전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

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간의 가치관 비교를 위하여 One-way ANOVA로 분석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 기독교 교양교육 전, 세 집단¹⁰⁴⁾의 가치관 비교

집단	가치관	F	p
	평균(표준편차)		
비기독교대학생(188명)	116.63(7.67)	468.875	.000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120명)	135.69(.46)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44명)	132.32(1.61)		

기독교 교양교육 교과과정을 적용하기 전 가치관 평균 점수는 비기독교대학생이 116.63점,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이 135.69점,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이 132.32점으로 0.01퍼센트의 오차확률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이 가장 높은 가치관 수준을 보였으며, 비기독교대학생이 가장 낮은 가치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정상적 신앙고백을 질문하여 기독교학생의 신앙수준을 파악하는 전 문항에 만족한 응답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의 경우에도 비기독교대학생에 비해서는 높은 가치관 수준을 보였다.

나. 기독교 교양교육 후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간의 가치관 비교

기독교 교양교육 교과과정을 적용한 후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간의 가치관 비교를 위하여 One-way ANOVA로 분석한 결과는 <표 25>과 같다.

기독교 교양교육 교과과정을 적용한 후 가치관 평균 점수는 비기독교대학생이 137.72점,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이 140.39점,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이 139.11점으로 0.01퍼센트의 오차확률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104) 세 집단은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을 의미한다.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교양교육 전보다 가치관의 수준 변화는 세 집단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각 집단 간에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가치관의 수준 차이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의 경우 장기간의 신앙교육을 받아 온 기독교인이 많아 오랫동안 형성된 신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독교 교양교육 전 세 집단의 가치관 수준 차이의 폭이 줄어들어 본 연구에서의 기독교 교양교육이 대학생의 가치관 수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5> 기독교 교양교육 후, 세 집단의 가치관 비교

대상자 \ 시점	교육 전 평균(표준편차)	교육 후(14주 후) 평균(표준편차)	교육 후(26주 후) 평균(표준편차)	p
비기독교대학생	116.63(7.67)	137.72(4.50)	137.98(3.44)	.000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135.69(.46)	140.39(.46)	141.21(1.23)	.000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는 기독교대학생	132.32(1.61)	139.11(7.80)	140.63(3.25)	.000

다. 대상자의 가치관에 대한 시점별 변화

대상자의 시점별(기독교 교양교육 전, 14주 후, 26주 후)에 따른 가치관 변화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으로 검정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대상자의 가치관에 대한 시점별 변화

집단 \ 가치관	평균(표준편차)	F	p
비기독교대학생(188명)	137.72(4.50)	13.224	.000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120명)	140.39(.46)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는 기독교대학생(44명)	139.11(7.80)		

<표 26>에서 비기독교대학생의 시점별 가치관 변화는 기독교 교양교육 전 가치관

평균은 116.63점, 14주 후의 가치관 평균은 137.72점, 26주 후의 가치관 평균은 137.98점으로 시점별에 있어 대상자의 가치관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차이를 나타낸 시점은 기독교 교양교육 전과 14주 후의 가치관 수준, 기독교 교양교육 전과 26주 후의 가치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기독교대학생의 경우에도 기독교 교양교육이 가치관 수준을 증가시켰으며, 교육 후에도 변화된 가치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의 시점별 가치관 변화는 기독교 교양교육 전 가치관 평균은 135.69점, 14주 후의 가치관 평균은 140.39점, 26주 후의 가치관 평균은 141.21점으로 시점별에 있어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의 가치관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비기독교대학생의 가치관 변화 폭 보다 적은 변화 폭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차후 반복연구와 비교연구를 하여 원인 분석과 일반화할 필요성이 있다.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는 기독교대학생은 3개의 시점별 가치관 변화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비기독교대학생과 비교하여 역시 변화 폭이 적었으나 교육 후에는 가치관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생의 가치관 변화 폭은 차이가 있었지만 세 집단 모두 기독교 교양 교육 후에 가치관 수준이 높이 변화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인 가치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통해 적절한 가치관 교육을 위한 기독교 교양교육은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2.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간의 진로성숙도 비교

기독교 교양교육 후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아진 대상자를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으로 세분화시켜 각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진로성숙도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의 기독교 교양교육 전, 14주 후, 26주 후에 조사한 진로성숙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가. 기독교 교양교육 전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간의 진로성숙도 비교

본 연구에서 기독교 교양교육 교과과정을 적용하기 전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간의 진로성숙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 변량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기독교 교양교육 전, 세 집단의 진로성숙도 비교

집단	진로성숙도	F	p
	평균(표준편차)		
비기독교대학생	135.90(4.75)	2.354	.238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136.91(3.24)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	136.93(1.67)		

기독교 교양교육 교과과정을 적용하기 전 진로성숙도 평균 점수는 비기독교대학생이 108.52점,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이 116.75점,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이 110.24점으로 0.01퍼센트의 오차확률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이 비기독교대학생과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에 비해 높은 진로성숙 수준을 보였다. 가장 높은 진로성숙도를 나타낸 집단은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집단이었으며, 가장 낮은 진로성숙도를 보인 집단은 비기독교대학생 집단이었다.

나. 기독교 교양교육 후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간의 진로성숙도 비교

기독교 교양교육 교과과정을 적용한 후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간의 진로성숙도 비교를 위하여 일원 변량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 기독교 교양교육 후, 세 집단의 진로성숙도 비교

대상자	시점	교육 전 평균(표준편차)	교육 후(14주 후) 평균(표준편차)	교육 후(26주 후) 평균(표준편차)	p
비기독교대학생		108.52(6.12)	135.90(4.75)	136.34(2.44)	.000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116.75(1.24)	136.91(3.24)	137.98(2.23)	.000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는 기독교대학생		110.12(.48)	136.93(1.67)	137.94(3.25)	.000

기독교 교양교육 교과과정을 적용한 후 진로성숙도 평균 점수는 비기독교대학생이 135.90점,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이 136.91점,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이 136.9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 모두 기독교 교양교육 전 진로성숙 수준 보다 기독교 교양교육 후 진로성숙 수준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교양교육 후의 가치관에서의 집단 간의 차이와는 다른 결과이다. 학생들의 직업이나 진로에 관계된 것은 가치관이나 신념과는 달리 다가오는 현실 문제로 인식되어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 대상자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시점별 변화

대상자의 시점별(기독교 교양교육 전, 14주 후, 26주 후)에 따른 진로성숙도 변화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으로 검정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대상자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시점별 변화

집단	진로성숙도	평균(표준편차)	F	p
비기독교대학생		108.52(6.12)	137.363	.000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116.75(1.24)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		110.12(.48)		

<표 29>에서 비기독교대학생의 시점별 진로성숙도 변화는 기독교 교양교육 전 진로성숙도 평균은 108.52점, 14주 후의 진로성숙도 평균은 135.90점, 26주 후의 진로성숙도 평균은 136.34점으로 시점별에 있어 대상자의 진로성숙도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시점은 기독교 교양교육 전과 14주 후의 진로성숙도 수준, 기독교 교양교육 전과 26주 후의 진로성숙도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기독교대학생의 경우에도 기독교 교양교육이 진로성숙도 수준을 증가시켰으며, 교육 후에도 변화된 진로성숙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과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는 기독교대학생의 시점별 진로성숙도 변화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세 집단 모두 기독교 교양 교육 후에 진로성숙도 수준이 높아졌으며 지속적인 진로성숙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통해 진로지도 교과과정 내용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기독교 정신, 가치관 교육, 진로지도 등 세 개의 틀로 구성된 기독교 교양교육을 혜천대학 학생에게 14주를 걸쳐 적용하여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1절에서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연구대상자, 연구설계, 자료분석 방법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의 문제, 오차의 문제, 교과과정 프로그램 개발 문제를 논의하였다. 2절에서는 먼저,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종교적 특성에 대한 통계적 분포와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수준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연구대상자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종교적 특성, 기독교대학생의 신앙수준에 따른 가치관 및 진로성숙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통계결과를 논의하였다. 3절에서는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 수준과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가치관 수준, 진로성숙 수준, 가치관과 진로성숙도와 상관을 분석하였다. 4절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가치관 비교와 추후검증,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진로성숙도 비교와 추후검증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논의하였으며, 5절에서는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는 기독교대학생간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 대상자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에 대한 시점별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분석, 논의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기독교 정신, 가치관 교육, 진로지도 등 세 개의 틀로 구성된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과정을 14주를 걸쳐 적용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겠다.

제 6 장

연구결과의 논의 및 제언

대학에서의 기독교 교양교육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교육이 아니고 비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넘어 모든 학생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력의 역할까지 담당한다면 기독교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필자는 기독교 교양과목에 대학생들의 중요한 가치관과 당면한 진로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구성한 것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6장에서는 이러한 교과과정을 적용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제시할 것이다.

제 1 절 대학생의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기독교 교양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기독교 교양교육을 받기 전과 비교하여 가치관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적용된 기독교 교양교육이 대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가치관 점수가 교육을 받기 전보다 후에 증가한 것은 본 연구에서 실시된 기독교 교양교육에서 기독교적 사고의 능력을 길러주고 기독교적 인생관을 제시되어 학생들이 기독교인 세계관에 입각한 역사관, 문화관, 가정관, 직업관 및 국가관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개인의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대학생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갑자기 다양한 환경에 접하면

서 개개인의 소양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기회가 많아지며, 종교·가치관·인생관·정치적 견해 및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사회적 인지능력이 발달되면서 자아개념이 발달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다양성은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엄습하므로 미처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도 전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좌절감과 심한 불안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시기를 경험하는 대학생은 자신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물질주의적 성향, 이기적 개인주의 성향, 기성세대와의 갈등적 성향, 현재 지향적 성향과 같은 부정적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가치체계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먼저 기독교 가치관을 제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기독교, 성경 및 교회에 대하여 일반적인 이해를 갖도록 지도하여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강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즉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긍정적으로 형성된 바탕 위에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인격형성 과정에서 그것들을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된다. 대학생의 가치관이 긍정적인 발달을 가져온 본 연구의 결과에서 기독교 정신은 건강한 이념들과 공존하여 대학의 교육 이념이나 가치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를 제공한다는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기독교 정신은 세상에 대한 가치관의 기초와 의미를 제공하는데 바람직하고 건강한 휴머니즘, 공동체 형성, 상상력의 개발 등은 기독교의 정신적 토대 위에서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정착될 것이다. 나아가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 교양교육은 인간이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인격의 변화와 공동체의 변혁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학생의 가치관 발달은 개인의 인간존재 목표 상태에 대해 추구해야 할 것과 회피해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인간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체계로서 대학생의 행동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학생의 동기와 포부를 바람직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가치관은 개인의 학습을 통하여 내면화되어 동기에 작용할 수 있는 학습이론적 발달에 입각한 기독교의 긍정적인 가치관 교육은 대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대상자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독교 교양교육 전에는 비기독교 대학생에 비해 기독교대학생의 가치관 수준이 높았으며, 기독교 대학생 중에도 정상적 신

양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의 가치관 수준이 더 유의하게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인간상에 대한 전인적 인격 교육과 신앙교육을 받은 기독교 대학생은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 무분별한 욕구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육성되어 비기독교인 보다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가치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치관 수준이 긍정적으로 발달된 사람은 진로성숙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발달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가치관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직업과 관련된 자신의 진로 태도까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된 기독교 교양교육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정신을 심어주는 기독교 가치관의 교육은 대학생의 가치관 수준을 더 바람직하게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치관 정립과 자아정체감의 혼미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에게 왜곡된 인간의 마음이나 사회를 온전하게 만들고자하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는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하는 기독교 교양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기독교 교양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기독교 교양교육을 받기 전과 비교하여 진로성숙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교양교육이 대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점수가 교육을 받기 전보다 후에 증가한 것은 본 연구자가 기독교 직업관을 제시하여 대상자들의 긍정적인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진로지도에 대한 교육내용을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과정으로 구성하여 교육한 결과 개인의 진로성숙 태도 발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신의 성격유형을 아는 자기 이해와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유형에 대한 정보를 경험하게 하는 MBTI 성격유형 검사를 실시하여 직

업과 관련된 일처리 경향, 직업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자기탐색과 자기이해에 대한 조력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의식에 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기독교 직업관에 입각한 학생 개인의 직업에 대한 생각들과 태도에 대해 팀으로 서로 토론하게 하고 이후에 토론한 팀원들의 의견들을 발표지에 작성하게 하는 팀 발표를 함으로 직업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고취시켜 바람직한 직업관과 직업의식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 탐색을 위해 자신의 성격유형과 연관시켜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을 위주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20가지의 직업에 대해 탐색하게 하고 탐색한 직업을 중심으로 일 처리 경향과 연관시켜 최종적으로 희망하는 직업 5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사결정 기술의 중요성과 인간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기술도 자신의 성격유형에서 선호하는 경향과 비교하여 타인의 독특성을 이해하는 경험을 하게 한 진로지도 교과내용이 대학생들의 진로성숙 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성숙도는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 조정해 나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학생 개인의 진로성숙은 학생들의 교육 및 진로계획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적용된 기독교 교양교육의 결과로 긍정적으로 발달된 대학생의 진로성숙은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길러주고 진로와 관련한 적극적인 준비 행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 대상자간의 진로성숙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독교 교양교육 전에는 비기독교대학생에 비해 기독교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았으며, 기독교 대학생 중에도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수준이 더 유의하게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은 바람직한 기독교 직업관에 대한 정체성이 비기독교인과 정상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인보다 더 확고하게 정립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렇게 정립된 직업 가치관은 학생들의 진로성숙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본 기독교 교양교육 교과과정에서 구성된 진로지도 교육이 대학생의 당면 문제인 직업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성숙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

내었으므로 본 연구자가 시도한 확대된 교과과정으로 구성된 기독교 교양교육이 대학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 3 절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과정 개발에 대한 제언

기독교 교양교육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깨달음은 다른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어 개개인이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양한 전공을 하는 있는 학생들에게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학문을 접하게 함으로써 기독교적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의 빛 안에서 자신의 전공 학문을 조명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의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는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기독교 대학에서 채플이나 기독교 교양과목이 다른 교양과목들과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교양과목은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물질문명화 되어 가는 현대인들에게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은 지닌 인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교과과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학과와 전공 분야, 기독교적 학문과 일반 학문 사이에 연구와 가르침이 가능한 교과과정을 개발해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종교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유익한 교양과목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양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다양한 종교를 비롯하여 비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필자는 대학에서 기독교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 교양과목의 교과과정을 기독교 신앙 교육과 더불어 대학생들의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식을 근거로 하여 가치관 교육을 위한 기독교 가치관, 직업과 연관된 진로지도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14주 동안 실시된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과정은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일 대학 일개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확대연구와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자는 본 교과목의 내용인 진로지도와 관련된 진로상담 분야 교육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전문적인 진로상담 교수가 아니므로 심리학적으로 개인의 성격유형을 알 수 있는 MBTI 검사지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기독교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목이나 교수는 투철한 소명감과 더불어 다양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흥미 있고 유익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전문화된 역량과 기술이 필요성에 대해 제언한다.

본 장에서는 기독교 교양과목에 대학생들의 중요한 가치관과 당면한 진로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본 연구에서는 14주를 교육하여 통계적으로 분석된 연구결과 논의와 제언에 대해 기술하였다. 먼저, 대학생의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로는 기독교 교양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기독교 교양교육을 받기 전과 비교하여 가치관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적용된 기독교 교양교육이 대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 교양교육에서 기독교적 사고의 능력과 기독교적 인생관이 제시되어 학생들이 기독교인 세계관에 입각한 역사관, 문화관, 가정관, 직업관 및 국가관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개인의 가치체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두 번째로, 기독교 교양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기독교 교양교육을 받기 전과 비교하여 진로성숙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독교 교양교육이 대학생의 전후 진로성숙도에 변화를 가져 온 결과는 기독교 교양교육이 대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과정 개발에 대해 제언하고 기독교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목, 교수의 교과과정 개발에 따른 전문적 능력 함양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제 7 장

결 론

가치관의 요소는 인간행동의 전 시기에 걸쳐 중요한 것이지만, 특히 성인기의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의 준비 시기인 대학생에게는 청소년기의 과업인 자아정체감 확립과 더불어 건전한 가치관의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생의 가치관 혼란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전한 가치관 정립의 필요성과 함께 졸업 후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는 대학에서 요구되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은 대학생들이 학문적, 인격적으로 훌륭히 성장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가치관과 진로태도에 대한 성숙을 갖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진로와 관련한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기독교 교양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 대학생의 건전한 가치관과 진로태도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필자는 총 6장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기독교 교양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는 기독교 교양교육의 목적과 성격을 고찰하였다. 기독교 교양교육의 목적은 창조세계의 모든 실재를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바라보게 하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물들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하며 기독교 정신을 삶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학생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 교양교육의 성격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 권지에서 행함으로써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역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인인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가치관을 형성을 조력해야 한다. 2절에서는 기독교 교양교육 현황과 현실문제 고찰로 기독교 교양교육의 현황에서는 파

악된 대학별 기독교 교양과목의 개설 현황을 통해 각 대학의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과정 내용의 공통점은 선교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내용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독교 교양과목의 현실문제로는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는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기독교 대학에서 채플이나 기독교 교양과목이 다른 교양과목들과 더불어 상대화, 평가절하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학과와 전공 분야, 기독교적 학문과 일반 학문 사이에 연구와 가르침이 가능한 교과과정을 개발할 필요에 대해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태도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는데 1절에서는 대학생의 발달 특징과 문제 행동들로 음주와 흡연, 약물남용, 혼전임신, 자살, 비만과 거식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 논의하였다. 2절에서는 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 가치관에 대한 용어 정의, 분류, 정신분석학적, 학습이론적, 지각적 해석(장의 이론)에서 본 가치관 형성가치관 접근 이론을 고찰하였으며, 한국대학생의 가치관에서 청소년의 의식구조, 한국대학생의 가치관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논의하였다. 3절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성숙 발달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 내적, 외적 진로정보에 대한 이해를 논의하였으며,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의 현실문제로 입시위주의 진로지도, 부모중심의 결정,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왜곡된 직업의식,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를 논의하였다. 진로성숙을 위한 진로지도에 관한 내용으로는 직업적 역할과 자아인식, 일의 세계에 대한 인식, 일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습득,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 원만한 인간관계 습득, 일과 직업의 경제적 측면 이해, 교육과 일의 세계와의 관계 인식을 논의하였으며,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하여 MBTI이론에 대해 MBTI의 이해, MBTI와 진로, MBTI와 직무만족에 대해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독교 교양교의 교과과정을 기술하였다. 혜천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이념, 채플과 기독교 교양과목에 대한 내용, 기독교 교양과목인 성서의 세계, 기독교 윤리 과목의 교과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독교 교양교육 프로그램인 기독교 이해 과목의 교과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과정으로는 기독교 정신, 가치관 교

육, 진로지도 등 세 가지의 틀로 구성되었다. 기독교 정신에서는 기독교 입문,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인간론, 기독교론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치관 교육의 내용으로는 기독교에서의 역사관, 기독교에서의 문화, 기독교에서의 가정, 기독교에서의 국가, 기독교에서의 직업으로 구성하였다. 진로지도의 내용으로는 자기탐색과 자기이해에 대한 조력,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의식,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 의사결정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5장에서는 기독교 교양교육 실시 전·후의 연구결과 분석을 위해 연구방법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구체적 분석 내용으로는 대상자의 특성과 가치관 및 진로성숙도 분석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교적 특성에 따른 가치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종교적 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사전·사후 가치관과 진로성숙도 비교에서는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가치관 비교와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진로성숙도 비교를 위한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간의 가치관과 진로성숙도 비교에서는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간의 가치관 비교와 기독교 교양교육 전·후 비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는 기독교대학생, 정상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기독교대학생간의 진로성숙도 비교 분석을 하였다.

6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된 기독교 교양교육의 효과 논의 및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과정 개발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대학생의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에서 본 연구에서 기독교 교양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기독교 교양교육을 받기 전과 비교하여 가치관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교양교육이 대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의 가치관 점수가 교육을 받기 전보다 후에 증가한 것은 본 연구에서 실시된 기독교 교양교육에서 기독교적 사고의 능력을 길러주고 기독교적 인생관을 제시되어 학생들이 기독교인 세계관에 입각한 역사관, 문화관, 가정관, 직업관 및 국가관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개인의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학생의 동기와 포부를 바람직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가치관은 개인의 학습을 통하

여 내면화되어 동기에 작용할 수 있는 학습이론적 발달에 입각한 기독교의 긍정적인 가치관 교육은 대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에서 기독교 교양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기독교 교양교육을 받기 전과 비교하여 진로성숙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교양교육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점수가 교육을 받기 전보다 교육을 받은 후에 증가한 것은 본 연구자가 기독교 직업관을 제시하여 대상자들의 긍정적인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진로지도에 대한 교육내용을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과정으로 구성하여 교육한 결과 개인의 진로성숙 태도 발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의 현실 문제와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교과내용을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과정으로 접목시킨다면 가치관과 진로태도에 대한 성숙을 꾀하는데 조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반복연구와 확대연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선교와 교양교육의 양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기독교 교양교육의 교과과정 개발의 필요성이 제언되어지며, 또한 기독교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교목은 투철한 소명감과 더불어 다양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흥미 있고 유익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전문화된 역량과 기술을 습득 할 필요가 있다.

부록 1

설문지 1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성별(남, 여)
2. 나이(만 세)
3. 종교(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기타, 무교)

* 다음 4, 5, 6, 7, 8번에 대한 답변은 위의 3번에서 종교가 기독교라고 답변하신 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신급(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해당사항 없음)
5. 교파(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구세군, 기타)
6. 교회출석 경력(년 개월)
7. 다음은 신앙수준 점검을 위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 각 항목에 V표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예	아니오
성경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류가 없다.		
신 관	성부·성자·성령은 영광, 권능, 신성이 동등하시다.		
인간관	인간은 아담 범죄 이후 예외 없이 타락한 존재다.		
기독교관	예수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시다.		
구원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교회관	교회는 예배, 교육, 전도, 교재,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내세관	예수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심판 그리고 천국을 믿는다.		

부록 2

설문지 2 - 가치관 척도

* 다음 항목에 대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편이다	비교적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정직하게 사는 것					
2.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고방식					
3. 관대함					
4. 건강					
5. 정신적인 성숙					
6. 후회 없는 죽음					
7. 변화를 추구하는 생활					
8. 적극적인 생활					
9. 예의 바른					
10. 자녀에 대한 사랑					
11. 더불어 사는 삶					
12. 주변인의 안녕					
13. 청렴하게 사는 것					
14. 자신을 닮으면서 사는 것(수양)					
15. 타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16.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					
17. 분수 지키며 사는 것					
18. 신중한 사고방식					
19. 형제와의 우정					

항목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편이다	비교적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20. 인내하며 사는 것					
21.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					
22. 즐거운 생활					
23. 원만한 인간관계					
24. 보람 있는 직업					
25. 진정한 우정					
26.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					
27. 소신 있게 사는 것					
28. 성취감					
29. 화목한 가정					
30. 평등한 사회					
31. 자기 존중감					
32. 여가생활					
33. 현재에 최선을 다함					
34. 자신감					
35. 편안한 가정					
36. 책임감					
37. 긍정적인 사고방식					
38. 검소한 생활					
39. 환경보호					
40. 효					
41.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 가 되는 것					
42. 희망을 갖고 사는 것					
43. 겸손함					

부록 3

설문지 3 - 진로성숙도 척도

*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은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답안지의 4점 척도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방법>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에게

-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① 2 3 4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생각되면..... 1 ② 3 4
 “다소 그런 편이다”라고 생각되면..... 1 2 ③ 4
 “아주 그렇다”고 생각되면..... 1 2 3 ④

1. 나는 때때로 장래 어떤 일을 할까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어떤 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2. 사람들은 나에게 각기 다른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3. 어떤 직업에서든 성공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4. 수입만 많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
5. 나는 부모님이 추천해 주시는 직업을 택할 것이다.
6.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7.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8. 나는 취업요건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9.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들은 여러 가지 다른 직업들에 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10. 나는 때때로 직업포부 수준과 기대수준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느낀다.
11.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어

렵다.

12.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해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직업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13. 미래란 어차피 불확실한 것이므로 직업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14.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알맞은 직업은 단 하나 뿐이다.
15.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할지는 부모님이 가장 잘 알고 있다.
16.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내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17. 나는 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18. 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어떻게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19. 나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때가 많다.
20. 우리는 때로는 직업을 바꾸어야 할 때도 있다.
21.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생각을 자주 바꾼다.
22.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23. 나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직업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 걱정하지 않겠다.
24.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우연에 의해 좌우된다.
25. 직업선택에 있어서 부모의 충고를 따른다면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26.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다.
27. 나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28.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29. 나는 장래 직장생활에서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 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
30. 나는 놀기보다 일하기를 좋아한다.
31. 나는 장래 나의 직업에서 내가 되고자 하는 인물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32. 직장생활에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보다 누구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33. 직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34. 나는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35. 누군가 나에게 어떤 직종에 취직해야 할지를 말해준다면 좋겠다.
36. 나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37. 나는 나에게 큰 호감을 주는 직업을 발견할 수 없다.
38.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39. 나는 내 직업계획이 현실적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다.
40. 나는 여러 방면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한 직업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41. 우리는 앞으로 자신이 유명해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42. 어떤 직종에 취직하든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43.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보다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44. 우리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45. 나는 내 자신과 직업의 세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직업선택을 하기 어렵다.
46. 나는 내 적성이 어떤 직업에 맞는지 생각하기 어렵다.
47. 나는 직업목표가 높기 때문에 내 자신이 결코 그 일을 해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강영선, "기독교 교양과목을 통한 선교," *대학과 선교*, 2000년 창간호, 36.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 편, *심리척도핸드북 1·Ⅱ*, 서울: 학지사, 2001.
- 김성국, *조직과 인간행동*, 서울: 명경사, 1997.
- 김신정, 문선영, "일부대학생의 흡연실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권 1호 (2002), 147-160.
- 김정택, 심혜숙, *MBTI 질문과 응답*,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5.
- _____,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성*,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5.
- _____, 임승환, *나의 모습, 나의 얼굴*,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5.
- 김충기,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서울: 양서원, 1995.
- _____,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서울: 배영사, 1996.
- _____, 김현옥,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6.
- 김현옥, "청소년의 진로성숙의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대학원, 1989.
- 나경천 편, *혜천대학요람 2004*, 대전: 혜천대학 기획처, 2004.
- 나동석, *자살, 청소년 문제론*,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학교 협의회, *기독교학교교육*, 서울: 목양사, 1988.
- 문용린, *신세대의 이해-그들의 외식과 유형*,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1996.
- 세계철학대사전*, 서울: 교육출판공사, 1987, 335.
- 오택섭,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 서울: 나남출판사, 1998.
- 윤성림, 윤진, "청소년기 자살 생각과 그 관련 변인," *한국발달심리학회지* 6권 1호, 107-120.
- 은준관, "학원선교신학," *기독교 대학과 학원선교*, 1997, 77-81.
- 이계준, "21세기 대학과 학원선교의 새 모델," *승실대 100주년 기념 전국 기독교 대학*

- 교목 초청 세미나 자료집, 1997.
- _____, 기독교 대학과 학원선교. 서울: 전망사, 1997.
- 이상선, "여대생들의 식사행동과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대학원, 1993.
- 이영미, 이기완, "여대생의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와 섭식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2권 2호, 193-205.
- 이정근,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1978.
- 이재창, "진로교육 발전방안 탐색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 (1994), 80-119.
- 이춘재 외,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5.
- 임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 1994.
- 정범모, 학업성취의 요인. 서울: 교육출판사, 1989.
- 정세구, 가치·태도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배영사, 1988.
- 정진곤, 이관춘,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 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개인의 가치와 기업체의 가치를 중심으로. 서울: 소화, 1997.
- 정충영, 최이규, SPSS 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1997.
- 천안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 천안: 학생생활연구소, 2001.
- 청소년 대책 위원 편, 청소년백서, 1994.
- 최흥국, 스스로히바라야시, "한·일 대학생의 가치관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0권 1호, 3-29.
-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 문제와 실태.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 한승희, 어른들은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 2 번역서적
- Hirsh, S. and J. Kurnmerow, 성격유형과 삶의 양식. 심혜숙, 임승환 역.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7.
- Holmes, A.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서원모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1.
- _____, 기독교대학의 이념. 박진경, 서보임 역. 대구: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1986.

- Heschel, Abraham J. *누가 사람이냐*. 이현주 역, 서울: 종로서적, 1996.
- Wyckof, C. *기독교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김국환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Myers, B. and H. McCaulley. *MBTI 개발과 활용*.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역,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5.

3. 외국서적

- Brent, A.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s in Review* 9: 383-401.
- Castro, F. G, and E. Maddahian, M. D. Newomb, & P. M. Bentler, "A Multivariate Model of the Determinants of Cigarette Smoking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273-289.
- Crites, O.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Monterey, CA: CBT/McGraw-Hill, 1978.
- Crocker, W. and Goldman, A. *A Technique for Assessing Family Functioning in the Treatment of Childhood Obesity: The Pediatric Family Assessment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SRCO, Indianapolis, 1995.
- Erikson, H. Erik,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 W. Norton., 1963.
- Irwin, D. B. and J. A. Simon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Wisconsin: Brown & Benchmark, 1994.
- Johnston, L. D. and P. M. O'Malley, & J. G. Bachman. *Drug Use Rises among American Teenagers*.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1994.
- Suls, J. and A. G. Greenwald,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Self*, Vol. 3. Hillsdale, NJ: Erlbaum, 1986.
- Keniston, K. *Youth and Dissent : The Rise of the New Oppos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1.
- Kluckhohn, R. and L. Strodtbeck. *Variations in Values Orientations*. New York: Row, Peterson, 1961.

- Mckinney, P. "The Structure of Behavioral Value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y* 85: 235-244
- Newcomb, M. and H. Turner, & E. Converse, *Social Psychology*. New York: Rinehart and Winston, 1965.
- Parsons, T. and E. A.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 Roe, A. and M. Siegelman, *The Origin of Interests*. Washington D.C.: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1964
- Rokeach, M.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1973.
- Spindler, G. D., ed. *Education and Cultur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3.
- Super, E., J. Donald & O. Crites, *Appraising Vocational Fitness*. Delhi: Universal Book Stall, 1963.
- Tiedeman, D. and R. O'Hara,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Princeton: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1963.
- Tolbert, E.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1980.
- Wagner, M., E. Cole and P. Schwaryzman, *Prediction of Suicide Attempts among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Youth*,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1963.

Vita of
Kyuhyun Lee

Present Position:

Chaplain of Hyechon College, Daejeon, Korea
Assistant Pastor of Hyechon College Church, Daejeon,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January 17, 1962
Marital Status: Daegu, Korea
Married to Yunhee Kwon
Home Address: 106-701 Samick Mokwha Apt., Boksu-dong,
Seo-gu, Daejeon, Korea
Denomination: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Ordained: September 4, 1991

Education:

B. A.: Keimyung University, Daegu 1984
M. Ed.: Keimyung University, Daegu 1987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0
M. Eng.: Dankook University, Seoul 2002
Dr.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CA,
2004

Personal Experience:

3/2000 to present: Chaplain, Hyechon College, Daejeon
Assistant Pastor, Hyechon College Church,
Daejeon
10/1994 to 2/2000: Assistant Pastor, Seoulnam Presbyterian
Church, Seoul

9/1991 to 9/1994: Assistant Pastor, Dalseo Presbyterian
Church, Daegu

1/1990 to 9/1991: Intern, Dalseo Presbyterian Church,
Daegu

Professional Membership/Academic Honors:

3/2002 to present : Plural Lecturer, Hyecheon College, Daejeon

3/2000 to 2/2002 : Full-time Lecturer, Hyecheon College,
Daejeon